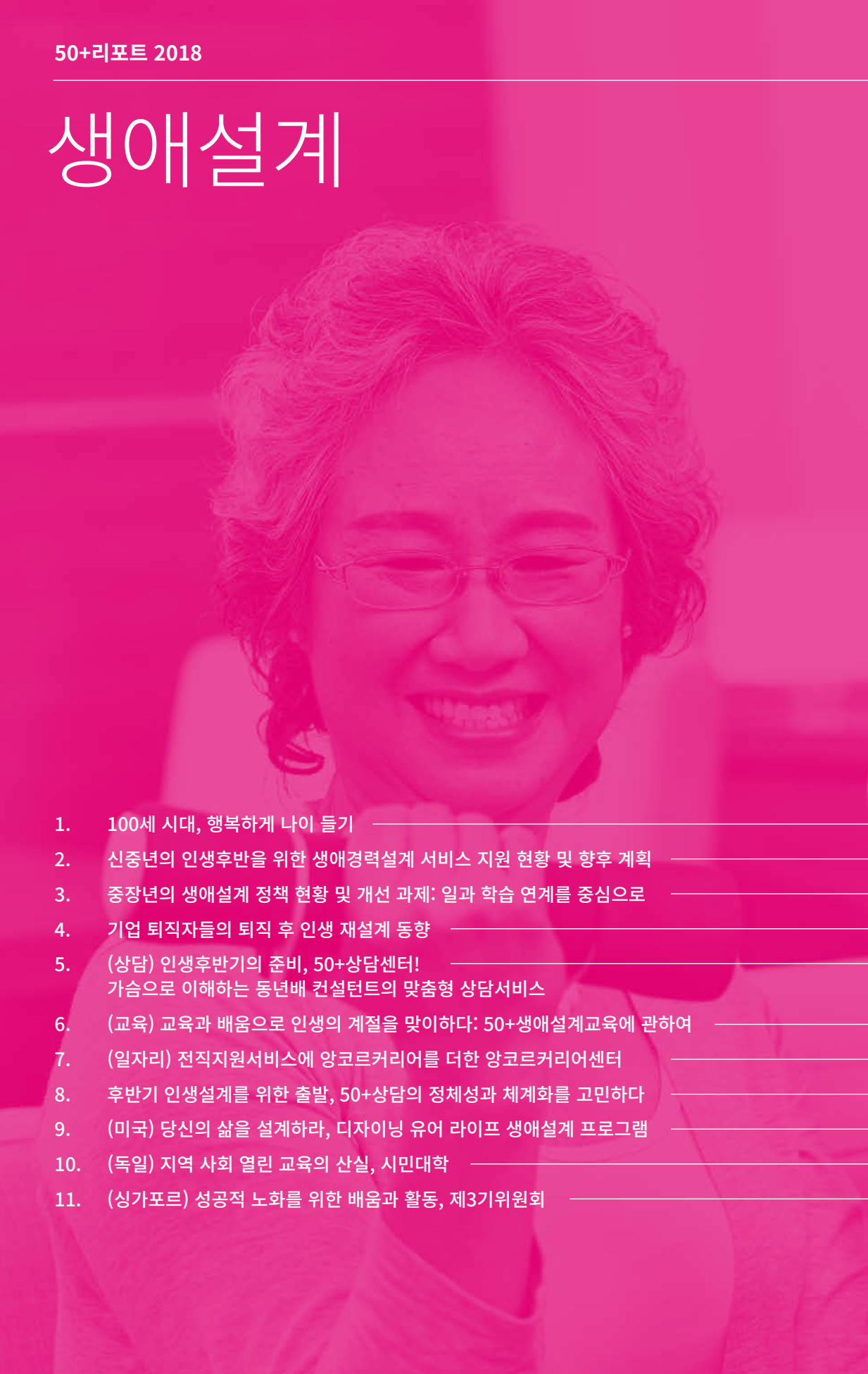


생애설계

- 
1. 100세 시대, 행복하게 나이 들기
 2. 신중년의 인생후반을 위한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
 3. 중장년의 생애설계 정책 현황 및 개선 과제: 일과 학습 연계를 중심으로
 4. 기업 퇴직자들의 퇴직 후 인생 재설계 동향
 5. (상담) 인생후반기의 준비, 50+상담센터!
가슴으로 이해하는 동년배 컨설턴트의 맞춤형 상담서비스
 6. (교육) 교육과 배움으로 인생의 계절을 맞이하다: 50+생애설계교육에 관하여
 7. (일자리) 전직지원서비스에 양코르커리어를 더한 양코르커리어센터
 8. 후반기 인생설계를 위한 출발, 50+상담의 정체성과 체계화를 고민하다
 9. (미국) 당신의 삶을 설계하라, 디자인 유어 라이프 생애설계 프로그램
 10. (독일) 지역 사회 열린 교육의 산실, 시민대학
 11. (싱가포르) 성공적 노화를 위한 배움과 활동, 제3기위원회

2장

78

86

94

102

108

116

124

132

140

154

162

100세 시대, 행복하게 나이 들기

김창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前 동물원 멤버

1. 행복한 노년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타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2. 행복한 노년은 성숙한 인격, 곧 성숙한 방어기제에서 비롯됩니다.
3. 통계적으로 확인된 건강한 노년을 약속하는 일곱 가지 요소들
4. 우리는 죽음이 우리를 멈추게 할때까지 발달합니다.
5. 일에서 얻는 즐거움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계속 일을 하여야 합니다.
6. 즐겁게 놀 줄 아는 사람이 진정 축복받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10

나이가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생의 과정으로,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더 발전적이고 만족스럽게 나이 들 수 있을까?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가 있다. 본 글에서는 그런 연구의 결론들을 소개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타인과의 교류, 성숙한 방어기제, 건강한 생활습관, 일, 취미, 교육 등의 요소를 제시한다. 즉, 긍정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하며, 좋은 인간관계를 쌓고, 적극적인 태도로 일과 취미, 배움을 이어 나가는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채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우리 앞에는 ‘나이듦’이라는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단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새로운 모습으로 맞이하게 될 ‘나이듦’의 과정을 어떻게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만족스럽고 발전적으로 나이가 들 수 있을까요?

1. 행복한 노년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타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인간 발달 과정에 대한 연구의 대가인 하버드 의대의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조지 베일런트는 성인의 발달 및 노화와 행복의 관련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들을 도출했습니다.

- 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잘 활용하였을 때, 행복한 노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늘 누가, 그리고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지 잘 파악하고, 그 기회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 ② 원만한 인간관계가 행복을 약속해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의를 가지고 상호작용을 해도 늘 오해와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인간관계의 회복은 감사하는 자세와 관대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이해하려 노력할 때 가능합니다.
- ③ 행복한 결혼생활이 행복한 노년을 약속해줍니다. 50세에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면 80세에도 만족스러운 노년을 누릴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 ④ 퇴직 후에도 즐겁고 창조적인 삶을 꾸려야 합니다. 배우자나 오래된 친구를 잃더라도 새로운 친구들 혹은 동반자를 사귀고 그들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 ⑤ 객관적인 신체건강보다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즉, 병원 신체검사서에서 건강하다는 수치들이 적힌 보고서를 받는 것보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결국 행복하게 나이 들려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2. 행복한 노년은 성숙한 인격, 곧 성숙한 방어기제에서 비롯됩니다.

현명한 사람은 힘든 상황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잘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죠. 부정적인 감정을 잘 조절하고, 감정과 이성의 조화를 유지해주는 정신의 조절 방법들을 방어기제라고 부릅니다. 현명한 사람들의 방어기제는 성숙하죠. 승화, 유머, 이타주의, 억제가 바람직하고 성숙한 방어기제의 좋은 예들입니다.

억제는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부정적인 감정과 상황을 무시하고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힘들어도 불구하고’ 참고, 긍정적인 것을 찾아 삶의 균형을 되찾으려 노력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이타주의는 자기가 받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으로써 즐거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남을 돕기 위해 기부하는 것,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 등이 이타주의의 좋은 예들이죠. 사실 이런 행동들은 사랑받고 싶고, 이 세상에서 고립되고 싶지 않은 이기적인 열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승화는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든 생각이나 욕구를 용인될 수 있거나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형시켜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유년기의 고통 때문에 얻게 된 어떤 특성을, 더 보람되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생각하고 연습을 하는 것이 승화의 보편적인 형태입니다.

유머는 곤란한 상황에서 빠져나오거나, 괴롭거나 불편한 기분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웃음과 농담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북하고 불쾌한 감정을 느끼지 않게 하려고, 심각한 일을 웃긴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버럭 화를 내지 않고 참고 밝은 면을 보려고 노력하고, 타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가치 없어 보이는 것들을 필요한 것으로 만들고, 어떻게 해

도 안 될 때에는 웃어넘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인생을 훨씬 더 수월해질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타인들에게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통계적으로 확인된 건강한 노년을 약속하는 일곱 가지 요소들

아름답고 행복하게 나이를 들기 위해서는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건강한 노화를 예측하게 해주는 7가지 요소를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비흡연, 또는 젊은 시절에 담배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담배를 30년 동안, 하루 한 갑 이상 꾸준히 피웠던 사람들이 조기 사망할 확률은 10배나 높습니다.

두번째는 적응적이고 행복한 방어기제들. 어려움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방어기제가 노년의 신체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지만, 주관적인 건강상태를 좌우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칩니다. 성숙한 성격은,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발전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나의 여부를 결정지어주기에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알코올 중독. 알코올 중독은 술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회적, 행동적, 정서적인 문제를 거듭 겪을 때 진단됩니다. 흔히 과중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술을 많이 마신다고 하지만, 사실은 술을 많이 마셔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네번째는 알맞은 체중. 비만은 담배만큼이나 신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다섯번째로는 안정적인 결혼생활. 결혼 만족도는 결혼 생활 전반에 대한 행복, 만족과 기쁨과 같은 주관적 감정으로서, 부부 및 가족 간의 애정, 원만한 인간관계, 경제적 안정, 자녀의 출산과 자녀들의 순조로운 성장과 사회적 성공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경제적 여유, 애정 표현, 성적 만족, 종교나 정치 등에 관한 비슷한 신념을 갖는 것, 서로를 믿는 것, 집안일을 함께 하는 것 등이 부부의 결혼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여섯번째로 운동. 신체건강은 물론 정신사회적 건강에까지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정도. 교육의 정도가 노년의 신체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이유는 교육을 통해 얻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나 지적 능력 때문이 아

냅니다. 그보다는 자기관리와 인내심입니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술, 담배, 음식, 자신과 주변 상황들을 잘 조절 및 관리하고, 어려움을 예상하여 대처를 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4. 우리는 죽음이 우리를 멈추게 할때까지 발달합니다.

인간의 발달과정에 대한 연구의 권위자인 에릭 에릭슨은, 인간이 건강하고 성숙하게 나이가 들수록 가족과 세상을 위하고, 삶의 의미와 윤리와 정의와, 공영에 대해 생각하는 현명한 인간이 된다고 했습니다.

성인의 발달 단계를 요약하면 대충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기 즈음 부모로부터 독립된 존재가 되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은 자기중심주의를 극복하고 타인들과 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친밀감’의 능력을 발전시키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사회 속에서 가치 있는 인간이 될 수 있도록 ‘직업적 안정성’을 얻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은 다음 세대를 헌신적으로 잘 보살피고 지도할 수 있는 ‘생산성 혹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획득하는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다음 세대에게 지금까지 축적된 지혜와 문화와, 삶의 의미들을 잘 물려줘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의미 혹은 현명함을 지켜나가는 어른’의 역할을 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가지고 삶을 조화롭게 인식할 수 있게 되어 가깝게는 가족과 사회와,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평화와 행복에 일조를 하는 ‘통합’의 단계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잘 수행하고 그 단계들을 나이에 걸맞게 잘 통과하고 있는 사람은 잘 발전하고 성숙해가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잘 살아가고 있다고 여길 수 있기에, 삶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우리가 인간의 발달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하고 성숙하여 인생을 즐길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생각하여야 합니다.

5. 일에서 얻는 즐거움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계속 일을 하여야 합니다.

은퇴가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경우는 크게 네 가지 정도입니다. 첫째,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갑작스럽게 퇴직을 하게 되었을 때, 둘째는 모아둔 돈이 적어서 봉급이 없으면 경제적 위기에 처하게 될 때, 셋째는 가정에서 행복을 찾지

못 하고 일터를 도피처로 삼았던 경우입니다. 넷째는 건강이 악화되어 본의 아니게 퇴직한 경우죠.

은퇴를 한 후, 일과 관련 없는 다른 즐거운 활동으로 건설적으로 보낼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서로 사랑하고 함께 놀며 인생을 즐기는 활동들을 말이죠. 그러나 일에서 얻는 즐거움이 삶의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업무적 능력을 증명하는 것으로, 자신의 유용성과 가치를 찾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유지되는 한, 계속 일을 해야 합니다. 은퇴는 자신의 선택이어야 즐거움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스트레스니까요. 다만 계속 일을 하고 싶다면 현실의 제한점들을 수궁하고, 또한 이를 극복하거나 상황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6. 즐겁게 놀 줄 아는 사람이 진정 축복받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회적 유능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들이 줄어들고, 젊었을 때 느끼던 정도의 큰 자긍심을 느끼기 어렵게 됩니다. 행복의 공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것이 삶을 즐겁게 해주는 놀이입니다.

어릴 적 혹은 젊었을 때부터 일과 놀이를 조화시키는 방법을 배웠다면 걱정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한국인들은 가족과 후손에게 좀 더 나은 삶을 전해주기 위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즐겁게 하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인색했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노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원래 취미가 있었다면 그 활동을 더 열성적으로 하세요. 승부를 가리는 놀이라면 더 재미있을 것이고, 덤으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취미가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취미를 찾아나서야 합니다. 서툴지만 지금부터 배우면 곧 익숙해지고, 잘 하게 되면 흥미도 더해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과 삶에 대한 호기심을 가져야 합니다. 알고 싶어 해야 알게 되는 것이고, 알아야 더 알고 싶어서 재미있는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배우자나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더 큰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7. 윤택한 노년을 위해 배움의 즐거움을 배워야 합니다.

배움을 통해 맛보는 즐거움은 노년의 심리적인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사물을 새롭고 다르게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활력과 변화가 없는 노년에 젊음을 선사해주기 때문입니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열정은 젊은 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발전하고 싶은 본능은 동물적인 것이니까요.

교육은 예전에 느끼거나 가지지 못 했던 새로운 사물과 관점들에 대한 호기심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대부분의 노년에 이른 인간은, 원래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일에 대부분 집중을 하는 젊은 세대보다 훨씬 더 폭넓은 관심사를 가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치, 인류, 복지, 환경, 철학, 종교 등 어떻게 하면 세상이 더 좋아질 수 있을지, 삶의 의미는 무엇일지에 대해 더 넓고 깊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공부는 노년의 능력과 사고방식과 잘 접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년이 되면 구체적인 정보를 기억하는 학습보다는, 얻어진 지식을 가지고 사색하고 분석하는 공부와 연구를 하여야 합니다.

젊음을 유지하려면 신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평생토록 배우고, 사색하고, 호기심과 열정을 유지하며 늘 새로운 것을 이해하고 만들어가는 적극적인 생활이 필요합니다.



신중년의 인생후반을 위한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

임은경

노사발전재단 인천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장

1. 다가오는 신중년의 퇴직 러시
2. 2018년 고용노동부의 생애설계서비스 정책 방향
3. 노사발전재단의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진행 현황
4. 보다 효과적인 생애경력설계 지원을 위해

11

2017년 8월,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신중년이라 부르는 5060 세대는 2016년 기준 1,340명으로 생산가능 인구의 30.9% 수준이다. 특히 2022년까지 신중년 세대 중 가장 큰 인구집단이며 상대적으로 고학력인 베이비부머가 대량퇴직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생애경력설계’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신중년층이 미리 후반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은 개인이 일하고 싶어 하는 연령까지 가능한 한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자신의 가치를 찾고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준다.

1. 다가오는 신중년의 퇴직 러시

2017년 8월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제 100세 시대라는 용어는 더 이상 새롭지 않다. 신중년이라 부르는 5060 세대는 2016년 기준 1,340만 명으로 생산가능인구의 30.9% 수준이며, 2027년 1,667만 명으로 정점에 이른 후 하락세로 전환할 전망이다. 특히 2022년까지 신중년 세대 중 가장 큰 인구 집단이며 상대적으로 고학력인 베이비부머가 대량퇴직에 직면하게 된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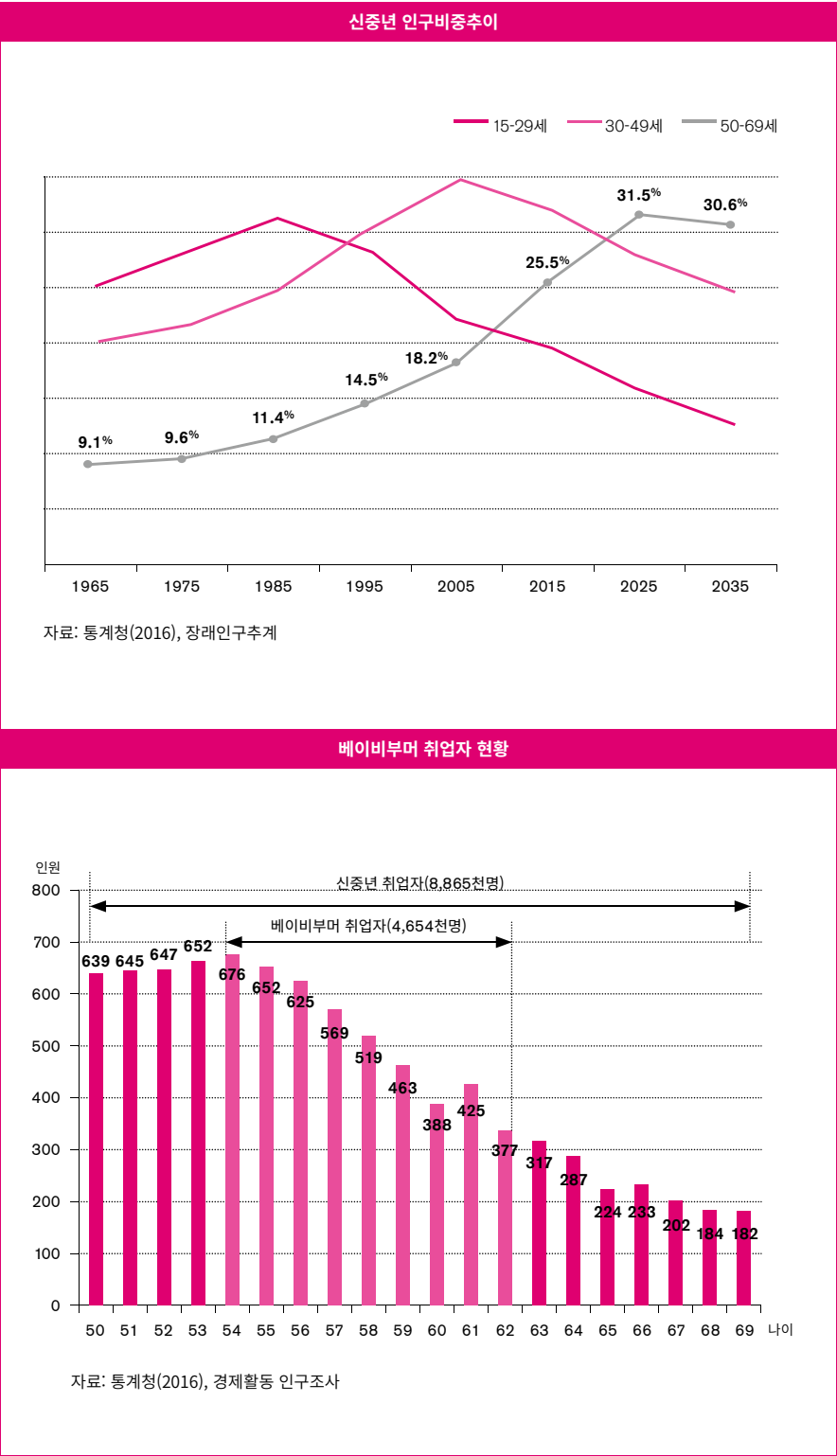
부모부양, 자녀양육으로 정작 자신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한 세대의 특성상 은퇴 후의 삶에 대한 불안감은 높을 수밖에 없고, 현재의 복지제도 안에서 은퇴 후 삶의 가장 유력한 대안은 일을 통한 ‘지속적 경제활동’이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접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대다수는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계속하여 경력을 유지하고 싶어 했지만 시장수요는 그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주지 못했고 자신의 경력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

이러한 고민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4년 전 ‘생애경력설계’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였고, 신중년층이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통해 미리 인생 후반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¹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 구축 계획발표, 2017.8

그림 1

신중년 인구비중 추이와 베이비부머 취업자 현황



2. 2018년 고용노동부의 생애설계서비스 정책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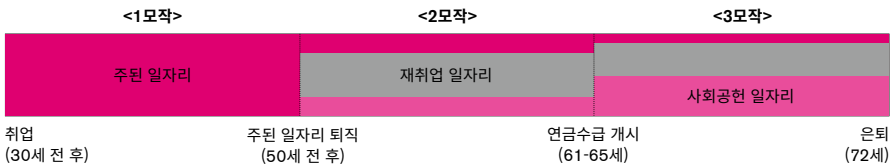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신중년의 노동시장 참여 희망 연령도 증가했으며, 그들은 50세 전후 주된 일자리 퇴직 이후에도 72세까지 소득 또는 보람 있는 노후를 위해 일자리나 일거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²

그러나 인생 2·3모작을 미리 계획·준비하는 신중년은 소수에 불과하였고, 노동시장 완전은퇴를 위한 경제적 준비가 완료되었거나 준비 중인 신중년도 전체의 41.4%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7년 8월 ‘신중년 인생3모작 구축계획’을 통해 생산가능인구의 1/3을 차지하는 5060 세대를 고령자·노인 대신 ‘신중년’으로 규정하고, 「주된일자리→재취업일자리→사회공헌 일자리」로 이어지는 인생3모작 기반을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을 정부 최초로 발표하였다.

인생3모작 개념도

그림 2



자료: 고용노동부(2017).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방안.

‘신중년 인생3모작 구축방안’은 주된 일자리(1모작)에서 퇴직 후 갑작스레 소득절벽을 마주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여 재취업(2모작)하여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은퇴 후 사회공헌 일자리(3모작)에서 일하며 점진적 은퇴를 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는 방안이다.

고용노동부는 ‘신중년 인생3모작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신중년이 인생 2·3모작을 위해 주요하게 선택하는 경로인 재취업, 창업, 귀농·귀어·귀촌, 사회공헌 등 주요경로별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보강하였다.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설정한 개인의 경로에 따라 창업 또는 귀농 등이 필요한 경우 각 기관으로 연계, 직업훈련이 필요한 경우 각 직업 훈련과정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폴리텍 신중년 특화캠퍼스를 지정하여 지역기반의 신중년 인력수요에 맞는 맞춤형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신중년 적합직무를 개발·확산하고 신중년적합직무에 구직자 고용 시 사업주에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² 2016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자부가조사

올해 8월에는 ‘신중년일자리확충방안’을 통해 신중년을 위한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하였다.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예산을 확대하여 신중년이 적합한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신중년의 일자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3. 노사발전재단의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진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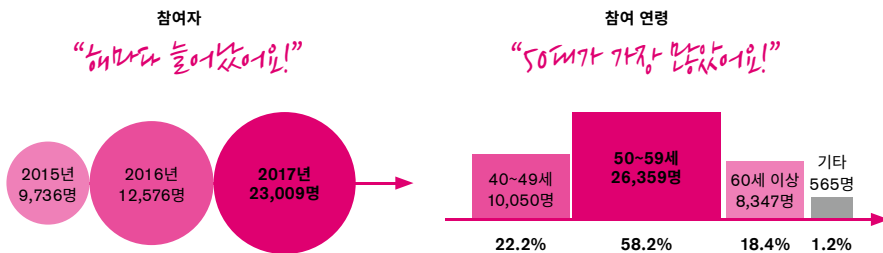
노사발전재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만40세 이상의 재직자 및 퇴직(예정)자의 생애경력설계, 전직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현재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전국에 32개(금융센터 미포함)가 있으며, 노사발전재단은 그 중 전국 광역단위 12개의 종합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안정적으로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신중년 생애경력설계 및 전직지원 선도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노사발전재단이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시작한지 어느덧 4년차에 접어들었다. 2014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장년고용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작해서 첫 해에는 50세 이상의 재직자가 지금까지의 자신의 경력과 생애를 돌아보고, 은퇴 후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시작했다.

참여자 및 기업의 요구에 따라 점차적으로 참여대상을 확대하여, 지금은 만 40세 이상의 재직자 및 구직자까지 생애경력설계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재직자의 경우 40대, 50대, 60대로 연령별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각 연령대에 당면하게 되는 미래 경력설계에 초점을 맞추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시행 첫해인 2015년에는 9,736명이 생애경력설계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2016년에는 12,576명이, 2017년에는 23,009명이 참여하여 해마다 참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참여자 연령은 50대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여성참가자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그림 3 최근 3년간 생애경력설계 참여 현황



노사발전재단에서는 생애설계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어디서든 항상 개척자는 소수이며, 다수는 개척자가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가게 마련이다. 인생2모작, 3모작을 준비하는 신중년들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바로 롤모델의 부재인데, 공모전에 입상한 사례는 좋은 롤모델이 되며 동영상 등을 통해 또는 직접 생애경력설계교육에 강사로 참여하여 자신만의 인생2모작, 3모작 경험담을 들려주기도 한다.

또한 2018년부터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신중년 인생3모작 패키지’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생애경력설계는 인생3모작 패키지의 기본 주춧돌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생애경력설계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경력방향을 수립하고 설정한 방향에 따라 취업/창업/귀농·귀어·귀촌/사회적경제 등의 기관을 소개받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는 첫째로 폴리텍대학의 신중년특화과정, 베이비부머 과정 등의 훈련과정, 사회적기업진흥원 등과 연계하여 신중년의 경력경로를 지원하고 있으며,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참여자의 다양한 경력경로에 따라 연계할 수 있는 기관을 점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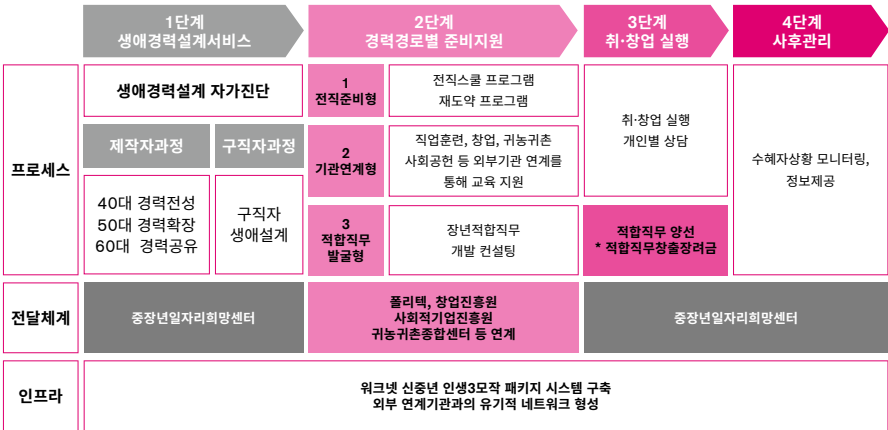
4. 보다 효과적인 생애경력설계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생애경력설계 참여지원 강화

지금까지의 생애경력설계 참여자 특성을 보면, 대기업 또는 공기업 근로자의 참여 비율이 높았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노사발전재단에서는 평일 야간과정, 주말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중소기업 참여자의 비율을 높여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노사발전재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사업구성

그림 4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법률’ 개정안에는 대기업의 전직지원서비스 및 생애설계프로그램 의무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대기업은 의무적으로 신중년 근로자를 위한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은 근로자를 위한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제공시 사업주나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신중년들이 인생 3모작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지역사회 중심의 다양한 일자리, 일거리 창출

생애경력설계는 개인이 일하고 싶어 하는 연령까지 가능한 한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자신의 가치를 찾고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일자리와 불가분의 관계로 귀결된다. 개인이 교육을 통해 ‘나는 A라는 직업으로 취업을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미리 교육을 받고 준비해서 개인의 역량을 높여도 시장의 수요가 없으면 경력확장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의 보람일자리, 제주도의 이음일자리 등 각 지자체에서 지역에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 지자체에서는 당면한 복지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지속적인 활동을 희망하는 신중년들은 활동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니 각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일자리 창출은 지역을 활성화시키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2018). <신중년일자리확충방안> 보도자료.
- 고용노동부(2017).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계획.
- 고용노동부(2016). 장년고용서비스 강화방안.
- 고용노동부(2014). 장년고용종합대책.
- 노사발전재단(2017). 2017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우수사례집.
- 통계청(2016). 장래인구추계.
- 통계청(2016). 경제활동인구조사.



중장년의 생애설계 정책 현황 및 개선 과제:

일과 학습 연계를 중심으로¹⁾

김인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 1. 들어가며
- 2. 중장년 생애설계에서 일과 학습 연계
- 3. 중장년의 생애설계 지원 정책 현황
- 4. 중장년 생애설계 지원의 문제점 및 개선 과제
- 5. 맺으며

12

저출산고령화시대 중장년의 생애설계에서 일과 학습의 연계는 기존의 복지주의적 평생교육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생산주의적 평생교육 방식으로의 전환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생산주의적 평생교육은 생애설계 관점에서 단순히 학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 아닌, 중장년의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학습과 일의 연계를 통해 복지 증진을 추구하는 새로운 삶의 질 향상 방식이다. 향후 중장년의 생애설계 관련 정책은 이 점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1.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의 속도뿐만이 아니라, 최근 OECD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빈곤률은 46%로 OECD 국가 중 전체 1위이며, 개인에게는 은퇴 이후의 경제력 문제, 국가에게는 생산가능인력의 지속적 감소 및 복지비 증대 등 국가성장위협이라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곽미선, 2017). 이처럼 저출산, 초고령화사회에서 중장년의 재취업, 창업·창직, 귀농·귀촌 등 퇴직 후 일자리에 대한 제2, 제3의 생애설계 문제는 매우 중요한 화두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로의 직면은 AI(Artificial Intelligence), IoT(Internet of Things)의 급속한 확산과 더불어, 전통적인 중장년의 일자리로 여겨졌던 운전기사, 경비원, 배달원, 계산원 등 저숙련·단순 노무직의 급감을 가져오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노후의 복지시스템이 미약하여 퇴직 이후의 삶이 온전히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100세 시대를 맞아 전 생애에 걸친 생애설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목표 아래, 신중년인생3모작계획(2017년), 신중년일자리확충방안(2018년), 제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18년) 등 범부처 기획 형태로 일과 학습 연계를 통해 생애설계프로그램을 구현하고자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하지만, 단기적인 사업 중심의 운영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 부족함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상존하고 있다. 최근 정부·사업주의 중장년 대상 생애설계서비스 제공을 명문화하기 위해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세대 간 이해관계 갈등 양상 등으로 현재 국회 계류 상태이다.

1 이 글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보고서 ‘중장년의 일과 학습에 관한 연구(김인엽 외, 2017)’를 토대로 작성됨.

한편, 일본, 독일 등 초고령화사회에 직면한 외국의 경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중장년을 대상으로 생애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재취업 지원을 법제화 하는 등 중장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중장년의 일과 학습 연계를 통한 생애설계 의미를 살펴보고 국내·외의 정책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²

2. 중장년 생애설계에서 일과 학습 연계

일과 학습 그리고 연계의 개념

일(work)이란 단순히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직업준비를 하는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일의 대가에 경제적 보상이 수반하지 않더라도 인간의 기본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부름 받는 일(calling)도 포함한다(이무근, 2006). 따라서 이타성을 내포하는 사회공헌 활동도 일의 범주로 볼 수 있다. 한편, 학습은 교육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고 긍정적으로 향상된 행동의 변화를 말한다. 즉 학습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데 한정된 개념이 아니고 지식 습득을 통한 행동의 변화, 실천까지 의미한다. 따라서, 중장년에게 일과 학습의 연계란 중장년이 재취업, 창업, 귀농·귀촌, 사회공헌 활동 등 제2인생을 설계함에 있어 학습이 필요하다는 전제를 토대로 일과 학습이 상호 유기적 관계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일과 학습 연계의 기능과 의미

중장년에게 평생학습이 일과 연계될 수 있는 기능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인적자원관리측면에서 현재 재직 중인 자를 능력 있는 인간으로 육성시켜 생애에 걸쳐 직업의 지속성과 계속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둘째는 학령기 학교 교육의 제한성, 거대성, 획일성으로 자칫 소홀히 취급될 수 있는 개인적 적성지도와 진로·취업교육에 대해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김용현 외, 2015).

이 두 가지 기능을 고려할 때, 일과 학습의 연계는 기존의 복지주의적 평생교육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생산주의적 평생교육 방식으로의 전환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생산주의적 평생교육이란 생애설계 관점에서 단순히 학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 아닌, 중장년의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학습과 일의 연계를 통해 복지 증진을 지향하는 삶의 질 향상 방식이다. 환언하면, 일과 학습 연계를 통한 중장년의 생애설계는 학습과 일, 나아가 복지의

² 예를 들면, 독일의 경우 모회사와 독립적인 사업체를 설립하여 최장 1년의 범위에서 구조조정 실업자의 교육·훈련 등 재취업 지원('04년 하르츠 개혁시 법적 근거 확보)하고 있음.

선순환 관계를 토대로 전 생애에 걸친 적극적인 삶의 질 향상을 의미한다.

3. 중장년의 생애설계 지원 정책 현황

우리나라의 중장년 생애설계 지원관련 정책

우리나라의 중장년 생애설계 관련 지원 정책은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단일부처의 정책과 범부처 차원의 정책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범부처단위의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계획은 신중년만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생애경로를 미리 설계·준비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신중년층이 액티브 에이징(active aging)으로서 인생3모작 성공기반 구축 및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7).

또한 고령자고용촉진 기본 계획은 100세 시대 고령자에 대한 고용촉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추진한 계획이다. 제3차 고령자 고용촉진기본계획(2017-2022)을 추진하면서 중장년층 인구 비중이 급속히 커지는 현실을 반영해 장년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60세 정년 의무화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제도 보완, 정년퇴직자 계속 고용 또는 재고용시 장려금 지급, 사무직 퇴직자 재취업 지원을 위한 ‘신중년 사관학교’ 과정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한편,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은 평생교육에 관한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 계획이다. 제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은 ‘개인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실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사람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확대, 개인과 사회의 동반 번영 지원, 기관 및 제도 간 연계·협력 강화 등의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다.

상기와 같이, 범부처 차원의 다양한 기본 계획과 사업이 존재하고 있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학습-일-복지의 선순환 구조의 인식 및 프로그램 부족, 정책 실행 주체와 로드맵의 부재,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단체와 협력하고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부재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외국의 중장년 생애설계 지원관련 정책

미국은 고령사회에서 국가의 위기는 국가 복지비 확대라고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장년 근로자에 대한 인적자원으로서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이들이 계속 노동시장에 남아서 충분한 소득을 확보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의 초점은 미국 내 노동시장의 제반 환경을 고령친화적으로 조성하는데 두고 있다. 또한 은퇴 후 새로운 노동시장 진입

을 원활하게 하는 정책으로 중장년 적합 일자리의 창출과 중장년의 교육·훈련 강화를 통한 고숙련화 등이 있다(김인엽 외, 2017). 특히, 미국에서 오랜 역사를 지닌 시니어 고용을 위한 ‘지역사회 기여형 시니어 교육 프로그램(SCSEP; 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55세 이상 근로자들을 위해 운영되지만, 특별대상을 지정하여 참가할 수 있으며 아가돌보미, 보조교사 등으로 학교, 병원 등 공공기관 및 비영리기관에 배치되어 일할 수 있고 1주에 20시간씩 6개월 참여 후 정부의 원조를 받지 않는 영구적인 직업을 탐색하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민상기 외, 2015). 또한 연방·주 정부차원에서 비영리기관을 통해 다양한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의욕과 능력에 부합하는 일할 수 있는 평생현역사회 실현을 목표로 중고령자가 해당 지역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지역 기반 확대, 중고령자들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정부 지원, 65세까지 중고령자 고용 확보 조치의 법적 의무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일본 후생노동성, 2017).

마지막으로 독일은 중장년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법적 기반 하에 모회사 외 독립적인 사업체를 설립하여 1년의 범위에서 구조조정 실업자의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직업적 계속교육의 프로그램 제공을 실업자, 실업의 위험에 처한 자, 교육 수준이 매우 낮은 자 등 특별한 상황의 근로자도 대상으로 한다. 직업적 계속교육과정에서 일정 시험을 통과하면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여 현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지원 하고 있다. 직업적 계속교육 지원 방안으로 교육비, 교통비, 숙식비, 자녀돌봄비용 등을 지원하는 교육바우처 제도와 연간 소득이 20,000유로 이하인 사람 중,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자, 자녀 양육중인 자, 가족 간병을 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장려금 제도 등이 있다.

이들 국가들은 중장년의 인적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새롭게 평가하고 있으며, 인적자원으로서의 가치 지향성을 위해 일의 지속성 제고는 물론 끊임없는 학습 기회 제공으로 일과 학습을 연계하고 있다는 점,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4. 중장년 생애설계 지원의 문제점 및 개선 과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일과 학습의 연계 관점에서 중장년 생애설계 정책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식 부족의 문제이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변화의 가속화 시대,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일과 학습 연계의 중요성에 대한 중장년 개인의

인식도 부족하지만, 일과 학습의 연계 정책이 곧 최고의 복지 정책이라는 부처와 지자체의 인식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일과 학습, 그리고 복지 연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 부처 및 지자체 그리고 노사발전재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 등 실행 기관 관계자들에 대한 연수 및 양성 체계 고도화 등 인식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프로그램의 문제이다. 중장년 대상 생애설계 정책이나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 또는 지원기관 담당자들 역시 중장년의 재취업, 창업, 귀농·귀촌, 사회공헌 활동 등 다양한 생애설계 경로와 중장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일과 학습의 연계를 위한 중장기적인 시스템 변화와 문화 형성 노력보다는 단기적인 성과 위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40세 이상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협력센터의 ‘중장년 은퇴준비 실태(2017)’ 조사에서 평균 69.4세까지 일자리를 갖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평생교육프로그램은 일과 연계성을 염두에 놓은 프로그램보다는 인문학, 교양 강좌 등으로 강사 섭외가 비교적 수월한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이들 강좌는 학습으로서 충분히 의미가 있지만 OCW^{Open Course Ware}, MOOC^{Massive Online Open Course} 등 온라인 교육 강좌가 일반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식과 교양 중심의 강좌 운영은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셋째, 거버넌스 부재의 문제이다. 중장년의 교육·훈련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부처별로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개별 부처에서 실질적 협업 과정 없이 운영되는 사례가 많다. 특히, 중장년의 생애 설계 지원 시 지자체 및 민간 기관과의 협력과 조율도 필요하지만 이를 총괄 실행·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제가 부족하다. 따라서 중장년이 직무, 연령, 학력, 성별 등에 따라 체계적 생애경력개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법령 정비의 문제이다. 현재,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고령자고용법)」이 있지만, 권고 사항 정도로 실질적으로 중장년이 일을 지속하고 학습과 일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의 실행력과 제어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정부·사업주의 중장년 대상 생애설계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특히, 중장년 생애설계 지원 기관의 법적 근거 확보, 평생교육바우처제 및 유급학습휴가제 등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 지원 방안을 담은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5. 맺으며

한국은 산업화시대를 거치면서 대기업 중심의 초고속 성장, 협력과 복지가 배제된 경쟁 중심의 사회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OECD 국가 중 행복지수가 가장 낮고, 노인빈곤률과 노인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로 전락하였다. 또한 일자리 질 문제와 소득격차는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행복지수를 높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수 역량을 발굴하여 모두가 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애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일과 학습 연계를 통한 중장년의 생애설계는 학습과 일의 연계로 일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복지 재원과 기능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므로 국가적 비전으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앞으로 중장년은 일과 학습의 연계를 염두에 놓은 생애설계를 통해 삶에서 재취업, 창업, 귀농·귀촌, 사회공헌활동 등 제2인생을 마음껏 누리는데 그 가치와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중장년 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정부·지자체의 체계적인 평생직업학습 지원을 통해서 삶에서 평생 현역 사회를 실현할 때, 중장년과 우리 사회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할 것이다.

참고자료

- 곽미선(2017). 중고령자의 희망 일자리 이동 특성 분석. 2018년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
- 관계부처합동(2017).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
- 관계부처합동(2018). 신중년일자리확충방안.
- 교육부(2018). 제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 김용현 외(2015). 평생교육론-평생학습과 열린 학습사회, 양서원.
- 김인엽 외(2017). 중장년의 일과 학습에 관한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민상기 외(2015). 중장년 대상 적합훈련직종 발굴 및 취업연계를 위한 해외 운영사례 조사 연구. 한국산업인력공단.
- 이무근(2006). 직업교육학원론 제3판. 교육과학사.
- 일본 후생노동성(2017). 고령자 고용대책의 개요.



기업 퇴직자들의 퇴직 후 인생 재설계 동향

김석란

삼성전자 경력컨설팅센터 부장

1. 국내 기업 퇴직자들의 퇴직 준비 양상
2. 국내외 기업 전직지원서비스 동향
3. 전직지원프로그램의 특징과 방향성
4. 마무리 및 제언

13

전직지원서비스는 국민적 의식의 변화와 기업의 수요 증가, 효과의 확대를 경험하면서 점차 생활설계프로그램, 생애설계프로그램과의 접목을 통해 경력개발을 위한 제도로 발전해 가고 있다. 또한 전직지원서비스가 초기에는 퇴직자를 지원하는 제도로만 활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재직자의 사전적 교육프로그램으로서의 역할로 확대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전직지원서비스는 여전히 개인의 삶 전반보다는 경력이나 재무적인 준비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때문에 기업이 미처 지원하지 못하는, 영리 분야에서의 경험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의 진입이나, 여가를 즐기기 위한 다양한 대안의 제시,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등의 역할을 50플러스가 담당해줌으로써 인생 2막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1. 국내 기업 퇴직자들의 퇴직 준비 양상

기업에서 퇴직하는 50대 남성이면서, 대한민국 중산층 가정의 가장들은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듯하다. 50대는 전 생애 발달적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는 생애 전환기라고 할 수 있다. 50대의 생애 전환기에 이들이 맞이하게 되는 첫 번째 고통은 퇴직으로 인한 당혹스러움과 심리적 불안이다. 20대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문방구 이력서 밖에 써 보지 못했던 이들이 50이 넘은 나이에 이력서라는 것을 다시 써야 하는 상황에 대해 당혹스러워 하고, 퇴직 이후에 겪어야 하는 새로운 변화에 불안함을 감추지 못한다. 두 번째 고통은 당장 해결해야 할 ‘재취업’이라는 과제뿐만 아니라 ‘60세 이후에는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라는 질문을 접하면서 인생 후반을 준비해야 하는 더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퇴직 이후에 맞이하는 재취업이라는 첫 번째 과제와 장기적 관점에서 생애경력을 준비해야 하는 두 번째 과제, 이 두 가지 모두가 50대의 어깨를 짓누르는 과업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몇 해 전부터 미래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접하고 있었음에도 실제로 준비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 질문을 하면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시간만 흘러가 버렸다”는 답을 듣게 된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후준비 실태조사 및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정책보고서 중 ‘50대의 제2의 일

을 위한 준비 여부'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조사 대상자 중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한 50대는 36.9%에 불과하며, 36.9% 중 '관심 있음'은 29.3%, '방법 모색 중'은 5.1%, '구체적 준비'는 2.4%에 불과했다. 제대로 된 준비를 하는 50대가 많지 않음을 확인해 주는 결과이다.

2. 국내외 기업 전직지원서비스 동향

선진국에서는 퇴직자의 신속한 전직지원, 인적 구조조정과 퇴직관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전직지원서비스가 인적 자원관리 활동의 일환으로 제도와화 되었으며, 최근에는 기술과 경제, 직무 태도, 문화규범의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선진국에서의 전직지원서비스는 경력개발, 직업탐구계획에 대한 상담부터 기업에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 기준, 개인 평가와 상담을 실시하고, 부가적으로 경력까지도 조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국내의 경우, 기업은 21세기의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근로자를 인적자본의 측면과 혁신적 경영기법으로 축소해야 할 비용 요소로 간주하는 극단의 현상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은 소비자의 수요에 대응하여 노동시장의 기술과 수준이 변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역량도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변화와 더불어 급격하게 불안정화 된 노동시장에서 개인은 평생직장 대신 평생직업과 평생 고용가능성을 지향해야 하는 실질적인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업의 전직지원서비스도 변화를 거듭해오고 있으며 내용 또한 다양해지고 다차원적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인력 유통화 시대의 도래로 상시적 퇴직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이에 따라 구조조정이 상시화 되던 시기를 거치면서 전직지원서비스는 국민적 의식의 변화와 기업의 수요 증가, 효과의 확대를 경험했고 점차 생활설계프로그램, 생애설계프로그램과의 접목을 통해 경력개발을 위한 제도로 발전해 가고 있다. 또한 전직지원서비스가 초기에는 퇴직자를 지원하는 제도로만 활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재직자의 사전적 교육프로그램으로서의 역할로 확대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업이 주도하여 전직지원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퇴직으로 위기에 처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은 여전히 사후 대응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삼성, 포스코, 현대, KT, 국민은행 등 일부 기업은 상시적으로 전직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이 종업원의 평생고용을 보장하기 어려운 시대를 맞

이하면서 일시적, 임시방편적 퇴직관리의 방식이 아닌 기업의 경쟁력 및 성과의 지속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전직지원서비스를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제도로 정착시켜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삼성의 경우, 현재 그룹 내에 4개의 전직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삼성전자는 2001년부터 경력개발센터를 설치하고 전직지원서비스를 실시해 오고 있다. 그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퇴직이 상시화 되고, 퇴직 이후 개인의 삶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2011년 8월 교육, 컨설팅 기능을 추가하여 경력컨설팅센터로 재편하였다. 2015년에는 5개 전자 계열사의 경력컨설팅센터가 통합되어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전직지원프로그램의 특징과 방향성

기업에서 20~30년 근속한 퇴직자들은 재직하는 동안 외부노동시장에 대해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았으며, 퇴직 이후의 경력 경로로 재취업 이외에는 고려해 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오랜 기간 한 직장에서만 근무를 했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고, 유연성이 낮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재취업을 하는 경우, 퇴직 한 회사와는 다른 조직문화, 시스템, 프로세스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격차가 존재하고 역할의 변화가 발생하면서 적응력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더불어 재취업 경험이 거의 없어 구직활동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하다는 점과 이러한 변화를 겪으면서 심리적 불안이 증대되었다는 점 등이 이들의 특징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대상의 특징이나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은 설계되었으며, 기업에서 운영되는 전직지원 프로그램의 특징은 대개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전직지원프로그램이 단기적 관점에서 빠른 재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는 측면과 전직지원을 생애경력 전환이 아닌 직장전환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중·고령자 퇴직자의 자기계발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평생교육 차원의 개념을 도입하여 전직을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둘째, 한 직장에서의 고용안정성 보다 다양한 노동시장에서의 고용가능성을 강조하는 노동시장의 특징을 고려하여 무경계 경력, 프로틴 protean 경력의 개념에 부합하는 경력탄력성의 제고에 초점을 맞추었다.

셋째, 전직 경험을 통해 퇴직 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고 퇴직자들을 이해하게 되면서, 기존의 관점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을 갖는다는 연구 결과들을 근거로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관점의 전환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프로그램에 반영하였다.

넷째, 삶의 6개 영역(일, 재정, 가족, 건강, 여가, 관계)에 대한 설계를 통해 미래의 삶을 구체적이고 주도적으로 운영하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노력은 큰 변화를 감당해야 하는 50대에게 일과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직지원서비스는 여전히 재취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생애설계, 특히 생애경력설계는 콘텐츠 개발 노력이나 프로그램의 질이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4. 마무리 및 제언

기업의 전직지원서비스는 여전히 개인의 삶 전반 보다는 경력이나 재무적인 준비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기업의 관점에서 개인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야에 교육이나 컨설팅이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다. 이들 전직지원프로그램이 개인의 여가나 가족,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는 있지만 좀 더 세세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기업이 제공하는 전직지원프로그램의 미흡한 부분을 50+캠퍼스/센터가 보완해주는 방식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영리분야에서의 경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의 진입이나 사회공헌 일자리 경험,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등의 활동은 기업이 미처 지원하지 못하는 영역이며 이러한 역할을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담당해줌으로써 인생 2막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 이 기고는 김석란의 숙명여자대학교 박사논문 ‘기업 전직지원프로그램의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인생후반기의 준비, 50+상담센터!

가슴으로 이해하는 동년배 컨설턴트의
맞춤형 상담서비스

조한중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교육사업실장

- 1. 50+상담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 2. 언제 찾는 곳인가요?
- 3.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4. 다른 곳의 상담과 무엇이 다르고 특별한가요?
- 5. 1:1 컨설턴트의 생애설계 7대 영역이란?
- 6. 찾아가는 50+생애설계 상담도 있다면서요?
- 7. 전문기관 연계 교육 및 상담은 또 뭐예요?
- 8. 50+생애설계상담소도 있네요!
- 9. 2018 미국노년학회와 베이비부머세션(What’s Next Boomer Business Summit)을 통해서 보는 상담콘텐츠의 미래

14

50+상담센터는 동년배 전문 컨설턴트들이 일·재무·사회공헌·사회적 관계·가족·여가·건강 등 생애설계 7대 영역 상담을 기본으로

50+세대에게 유용한 맞춤 정보(중장년 지원정책, 제도, 사업 등)를 알기 쉽게 제공한다. 50+컨설턴트의 1:1 전문 상담, 찾아가는 상담,

50+생애설계상담소 운영, 법률·건강·재무·주거 등 전문기관 연계 교육 및 상담을 통해 50+세대가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생후반전을 더욱 잘 준비하고 지혜롭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다.

1. 50+상담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50+상담센터는 50+세대가 살아온 삶을 통합적으로 되돌아보고 양코르커리어를 통해 창의적이고, 이타적인 삶으로의 인생후반전을 계획할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해 지원한다. 상담센터를 방문하면 50+세대를 가장 잘 이해하는 동년배 전문 컨설턴트가 반갑게 맞이한다. 서울시 사회공헌 일자리로 참여하는 <50+컨설턴트>는 일·재무·사회공헌·사회적관계·가족·여가·건강 등 생애설계 7대 영역 상담을 기본으로 양코르커리어를 통해 사회적 우정을 실천하고 양코르라이프를 설계하는 일이 가능하도록 50+세대에게 유용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2. 언제 찾는 곳인가요?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을 때, 즐겁게 지내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를 때,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경험을 반추해보고 싶을 때, 앞으로 살아갈 후반기 인생에 대한 설계가 필요할 때, 마음이 통하는 동년배와 고민을 나누기를 원할 때,



50+상담센터 전경



50+상담센터 내부 모습(50+컨설턴트들의 상담 모습)

새로운 일자리/일거리와 양코르커리어가 필요할 때, 다양한 정보가 필요할 때, 나의 경험과 가치를 활용할 곳을 찾고 있을 때 50+상담센터를 찾으면 된다.

3.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생애설계 7대 영역과 관련하여 전문 상담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 인생 후반기에 꼭 필요한 인생 설계를 이곳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상담자의 성향과 특성에 맞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받을 수 있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50+정책과 제도에 대해 안내받으며 사회공헌 혹은 일자리, 일거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한다.

4. 다른 곳의 상담과 무엇이 다르고 특별한가요?

상담 이후 바로 필요한 교육을 받거나 해결 방안을 찾도록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의 모든 정책, 제도, 기관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다양한 전문기관과의 연계로 생애설계 7대 영역을 넘어서 법률, 주거 등 현실적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50+의 삶을 머리 대신 가슴으로 이해하는 동년배 전문 컨설턴트가 인생의 동무가 되어 함께 합니다. 비슷한 생각을 갖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동무들과 일, 학습, 창의적 문화예술활동, 사회공헌을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커뮤니티 지원, 나아가 단체설립 등의 정보도 얻을 수 있다.

5. 1:1 컨설턴트의 생애설계 7대 영역이란?

50+세대를 가장 잘 이해하는 동년배 50+컨설턴트들이 50+세대의 경험, 전문성,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생애설계 7대 영역의 관점에서 상담을 진행한다.

뿐만 아니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50+컨설턴트가 참여한 상담 절차(상담준비-진행-마무리-기록)를 정리한 <상담자의 책>, 취업, 창업, 사회적경제 및 사회공헌에 대한 지식, 정책, 제도를 담은 <50+상담정보안내서>는 내담자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시의적절한 상담을 받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50+컨설턴트 집필 한국은퇴설계연구소 등 전문기관에서 감수

1:1 컨설턴트의 생애설계 7대 영역

구분	영역별 상담 내용
일	·일에 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공헌형 일자리 안내 ·기존 일자리 상담기관과 연계, 기본적 취업 역량 향상
사회공헌	·자신의 역량, 경험을 사회를 위해 활용하도록 독려 ·다양한 유형의 사회공헌활동 안내
재무	·상담자의 재무상태에 대한 해석 및 소비인식 제고 ·개인연금, 재무상담(국민연금공단 제휴)
사회적 관계	·지역사회 지원, 재능 기부, 협동조합 등 관계모델 소개 ·50+세대 지원사업 안내 및 참여 연결
가족	·은퇴 후 역할변화 적응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안내 ·올바른 손주교육, 세대소통 등 새로운 프로그램 제공
여가	·일과 여가(Work-Life Balance)의 균형, 조화 안내 ·서울시 주요 여가 프로그램 안내
건강	·예방 차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자기건강진단 상담

50+상담정보안내서

구분	내용
취업	정책지원제도, 취업정보사이트 및 관련기관 정보, 고용센터, 중장년일자리센터, 서울시 등 기타 취업 지원기관정책지원제도 및 내용 소개
재무	인생후반전 일반 재무상담, 내담자 유형별(소득 수준, 재직자/퇴직자 구분) 및 특정분야별 재무상담
사회적 경제 및 사회공헌	사회적경제 이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설립,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지원기관 및 사업, 사회공헌 프로그램 소개 등



코엑스일자리박람회

6. 찾아가는 50+생애설계 상담도 있다면서요?

일자리박람회, 지역축제, 전직지원 교육서비스 등을 통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한다. 2017년도에 총17회, 322건을 상담했으며 찾아가는 상담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 확대될 것이다.

구분	내용	협력단체
박람회	공공 및 민간이 주최하는 취업박람회, 일자리박람회 등에 찾아가는 상담 진행(총10회, 212건 상담)	영등포50+센터, 마포구청, 노사발전재단, 고양상공회의소, 서울시주택정책과, 코엑스, aT센터
지역축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지역축제 등 찾아가는 상담 진행(총4회, 52건 상담)	경의선책거리, 은평누리축제, 서울50+축제 등
전직지원서비스	공무원, 교직 등 퇴직예정자 대상 사람책, 1:1상담 혹은 집단 상담 진행(총3회, 58건)	국민체육진흥공단, 사학연금

7. 전문기관 연계 교육 및 상담은 또 뭐예요?

생애설계 7대 영역 외 50+세대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법률, 주거 등 전문기관, 전문가를 활용한 마중물로서의 교육과 심층 상담을 제공한다. 전문기관 상담으로 50+컨설턴트가 상담하지 않는 영역을 보완하고 상담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와의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1 상담, 강의, 그룹 강의, 사례 강의 후 공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며, 버스,



대한법률구조공단 생활법률 상담

숲 등 고객 친화적인 장소를 활용한다. 2017년에는 6개 단체와 협력하여 306 명의 상담을 진행하였다.

구분	내 용	협력단체
법률	비영리민간법인 설립 관련 법률 상담(자문) 외 개인상담: 10회 진행 241명 참여	(재)동천NPO법센터 시니어(법률)프로보노
	개인 생활법률, 증여/상속, 나홀로 소송, 부동산 법률 등: 4회 진행 39명 참여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및 파산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건강/관계	대사증후군, 당뇨, 올바른 생활습관, 가족관계 등	용산구건강가정지원센터, 국제성모병원 등
재무	재무적 및 비재무적 종합적 준비 안내, 재무설계아카데미 운영: 2회 26명 참여	국민연금공단

8. 50+생애설계상담소도 있네요!

50+컨설턴트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한 상담 주제를 정하여, 멘토링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50+생애설계상담소의 목적은 생애설계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인생재설계와 커리어모색의 필요성을 인식을 확대하고, 실천에 도움을 주고 싶기 때문이다. 생애설계상담소가 다루는 주제는 시간관리, 여가활용, 재무 설계, 50+일자리 모색, 생활법률, 관계교육, 손주교육, 사회 공헌활동, 마음근력 키우기, 생애전환기 가족관계 이해, 취업과 창업, 여가와

건강, 가족 및 사회적 관계,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대인관계, SNS활용, 자원봉사, 시간관리, 주거전환, 웰다잉, 셀프리더쉽 등 다채롭고 실용적이다. 2017년에는 총 5회 55개 과정 1,182명이 수강하였다. 2018년에도 여가, 일자리, 가족, 재무, 관계, 사회공헌 부문으로 나눠 보다 살아있는 교육과 상담을 위해 도전과 실험은 계속된다.

지난 한해 50+상담센터를 통해 총 18,550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방문상담은 2,309건이 있었고 방문상담 14,232건이 있었으며 특히 50+컨설턴트를 통한 1:1 전문 상담의 경우 2,009건이 이루어졌다. 1:1컨설턴트 상담은 일과 사회공헌에 대한 상담이 전체 상담의 85%를 차지한 것을 보면 5060 세대들은 아직 더 일을 하고 싶어 하고,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에 좀 더 일자리와 일거리에 관련된 정보가 많



[가족] 체험으로 나누는 성공적인 자녀(손주)교육



여의도 물빛공원에서 개최된 50+축제의 밖으로 나온 캠퍼스 찾아가는 상담

이 제공하고 있고, 실제 50+세대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일자리모델 발굴의 숙제를 안고 다양한 활동 지원도 하고자 한다.

*50+상담센터에 대한 상세한 이용 안내는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음(<http://50plus.or.kr/counsel.do#>)

9. 2018 미국노년학회와 베이비부머세션(What's Next Boomer Business Summit)을 통해서 보는 상담콘텐츠의 미래

우리와 비슷하게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차지)를 맞고 있는 미국은 2018년 미국노년학회 Aging in America Conference의 나이 들어가는 부머 Boomers 대상 비즈니스 서밋에서 장수경제 청사진 The Blueprint for the Longevity Economy으로 다섯 가지 키워드 ① 사회적 고립 Social Isolation, ② 향거장수 Aging in Place, ③ 인지력 유지를 위한 운동과 치매 Cognitive Fitness&Dementia, ④ 만성적인 건강상태의 조건들 Chronic Conditions, ⑤ 삶의 마무리 관리 End of Life Care를 제시하고 있다. 5개 핵심 키워드는 50+세대 당사자와 그 부모를 포함하는 가족들에게 의미 있는 키워드로 향후 상담의 콘텐츠 개발, 맞춤형 상담 시 참고해야 하는 주제이다.

4년 차에 접어든 50+상담센터도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으로 부터 교육, 커뮤니티, 사회공헌활동 및 다양한 활동 연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50플러스재단 상담센터의 50+맞춤형 상담콘텐츠 개발·제공과 온·오프라인 시스템 구축, 50+컨설턴트의 전문성 강화에 따른 원스톱 상담서비스의 만족도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50+세대들과 그 부모들의 돌봄, 가족통합(가족구성원, 세대 간 소통, 공감)을 위해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와 50+상담센터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나누고 싶다.

참고자료

서울시50플러스재단(2017). 경영실적보고서.

서울시50플러스재단(2017).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2017 연차보고서.

서울시50플러스재단(2017). 상담자의 책.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2017). 50+컨설턴트가 만드는 50+상담정보 안내서.

Mary Furlong&Associates(2018). 2018 Aging in America Conference&What's Next Boomer Business Summit. Aging Society on Aging.

교육과 배움으로 인생의 계절을 맞이하다:

50+생애설계교육에 관하여

황윤주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 교육사업실장

- 1. 50+세대의 생애설계를 위한 교육
- 2. 50+생애설계교육이란 무엇인가?!
- 3.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생애설계교육 현황
- 4. 더 긴 배움과 더 가까운 나눔을 실현하는 50+생애설계교육

15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에서 진행되는 교육과정은 50+세대의 생애 주기적 특성과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정체성’, ‘자기성찰’, ‘탐색과 모색’, ‘구상’에 이르는 생애설계적 관점을 구현하고자 노력한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추구하는 활동 지향적인 50+세대가 교육과 배움을 매개로 인생 후반전이라는 인생의 계절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을 공유하고자 한다.

1. 50+세대의 생애설계를 위한 교육

Houle(1961)은 성인학습 참여 동기에 의해 학습자 유형을 다음 세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성인학습 참여 동기가 분명한 목표 지향적인 학습자^{the goal-oriented learner}, 성인교육에 참여해 활동하는 자체를 즐기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추구하는 활동 지향적인 학습자^{the activity-oriented learner}, 끝으로 지식 자체를 탐구하는 학습 지향적인 학습자^{the learning-oriented learner}이다. 목표 지향형은 학습 참여에 구체적이고도 명백한 목표를 지니는 유형으로 현실적인 필요나 이익, 이해관계에 민감한 특징이 있다. 활동 지향형은 학습 그 자체에 목적이 있기보다는 학습에 참여한다는 사회적 활동 속에서 의미와 만족을 찾는다. 즉, 사회적 접촉이나 사회활동 참여, 대인관계가 주된 목적이다. 학습 지향형은 배운다는 그 자체가 좋아서 또는 근본적으로 알고자 하는 욕구로 인해 학습에 참여하는 유형들이다.

50+교육은 다른 평생교육기관의 자격증 취득이나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이나 취미, 인민교양 교육이 아닌 50+세대들의 사회활동 참여나 대인관계 증진을 목표로 삼고 있다. 활동지향형의 학습동기와 맥락을 같이 한다. 그렇다면 학습 동기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육은 어떻게 설계되어야 할까? 성인 발달이론으로 유명한 심리학자 Erickson(1968)과 Levinson(1978)은 중년기란 이미 자신만의 생활방식과 사고방식이 확립되어 있는 성인들로, 자아 정체성 재확립과 삶에 대한 성취욕, 관계에 대한 애착이 강한 생애발달적 특성이 드러난다고 하였다. 특히 Levinson(1978)은 개인의 삶에 나타나는 변화를 인생의 계절이라고 표현하면서 50대 전환기에는 자아와 세계에 대한 탐색과 다음 단계의 인생구조^{life structure}를 형성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해야한다고 언급하였다. 생애주기 관점에서 중년기는 인생의 후반기를 준비하는 시기이다. 교육과 배움을 통해 50+세대의 인생2막을 준비하기 위한 50+교육은 자아와 세계에 대한 탐색, 정체성 확립과 관계에 대한 애착을 충족시키게 설계되어야 한다. 이는 50+교육이 생애설계적 관점을 띄어야 함을 뒷받침해주는 말이다.



자발적 참여 교육 장면(1) 50+인생학교(서부)



자발적 참여 교육 장면(2) 꿈꾸는 라디오(중부)

2. 50+생애설계교육이란 무엇인가?!

『50+세대 인생이모작 실태 및 욕구조사 보고서(2015)』에 의하면 은퇴 전후의 50+세대는 새로운 유형의 관계망이 확장되길 바라고 있었다. 나이가 들수록 기존 모임 멤버가 아닌 공감대가 생길 수 있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새로운 사람들과의 모임, 서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생산적인 모임을 기대하는 것이다. 은퇴 후 불안한 인생2막을 대처하기 위해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싶어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생애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58세 재취업 남성

알고는 있지만 막상 퇴직이 닥칠 때 까지는 생각을 못하게 되요. 퇴직하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노후자금은 마련 안됐고 아직 아이들은 대학생이고, 결혼도 시켜야 하니까 무슨 일이든 해서 하루하루 버텨야겠다는 생각이예요.

2017. 50+세대의 생애설계와 사회참여를 위한 50+유관기관 간담회 참여자

퇴직 후 은퇴설계 교육을 3회나 수강했지만 실질적인 솔루션이 없어서 허탈했어요. 결국 개인이 알아서 해야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50+교육은 캠퍼스나 센터에서 인식전환 등의 기초적인 교육을 하고 대학이나 기타 전문교육기관으로 넘어가도록, 단계적인 교육으로 설계되어야 해요.

그렇다면, 생애설계교육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볼지 않을 수 없다.

국내50+생애설계교육 현황

대부분의 생애설계교육은 은퇴 후, 혹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설계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다른 말로 ‘노후설계교육’ 및 ‘전직지원교육’ 등이 있다. 일부 민간 기업이나 공사 등에서 실시되는 생애설계교육도 대부분이 퇴직을 앞두고 있는 임원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준이다. 생애주기 관점에서 사회구조

적, 개인적 특성을 염두에 둔, 그래서 다가올 인생후반기를 잘 준비하고 싶은 50+세대를 위한 생애설계교육을 만나기란 쉽지 않다.

노후설계 서비스는 크게 재무, 일, 사회공헌,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여가, 건강이라는 생애설계 7대 영역을 중심으로 한 정보제공 혹은 특정 분야 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생애설계교육’이라는 제목 아래 일과 관련된 경력설계, 전직지원 교육이 될 수도, 재무 설계 교육이 될 수 있다. 아니면 대부분의 문제를 조금씩 다루주는 패키지 형 프로그램도 존재한다.

대부분의 생애설계교육은 대상의 관점에서, 100세 시대의 특징 파악, 노후의 삶 예측, 자가 진단, 액티브 에이징의 경험 공유, 행복한 노후준비를 위한 다양한 기회를 탐색, 인생 후반전 준비에 필요한 정보와 전략 학습, 인생2막을 위한 변화의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식으로 구성되어있다. 생애설계교육의 기본은 성찰, 탐색, 구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50플러스의 교육체계는 서두에서 밝힌 ‘관계’를 중심으로 한 자아정체성, 사회적 역할 등을 강조하는 50+교육으로 구현되고 있을까?

노후설계(생애설계) 교육 및 서비스 현황

표 1

구분	기관	프로그램명	대상
정부 및 공공기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후설계서비스 제2인생설계아카데미	20세 이상 희망자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서비스, 노후준비정보 제공	일반 / 대상자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고령자정보센터, 고령자인재은행 노사발전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신중년 인생3모작 패키지 중장년 나침반 생애경력설계프로그램	퇴직자 및 구직자 대상
	지방자치단체 (대표)	서울시50플러스재단, 50플러스센터, 경기도 5060학교, 경기도 부천시 인생학교, 부산시 생애재설계대학, 울산 퇴직자지원센터, 제주도 탐나는 5060인생학교	40~60대
복지기관	노인교실,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서울시 복지센터 내일행복프로그램, 영등포노인종합사회복지관 시니어 행복발전센터	50세 이상 퇴직자 영등포거주 50~64
대학 및 교육기관	평생교육원, 대학부설 연구소, 사이버 대학 등	서울대 제3기 인생대학(U3A), 고려대 액티브시니어 전문가과정, 서울사이버대학교 노후생애설계교육	40~60대
종교기관	천주교, 개신교, 불교	불교상담아카데미 생애설계상담사, 한국교회노인학교연합회 한국노인학교지도자 아카데미,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톨릭시니어아카데미	
민간 보험회사 및 금융기관	삼성생명, 미래에셋, KB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흥국생명, 우리투자증권 등	행복한 노후를 위한 생애설계, 인생설계, 든든라이프, 은퇴설계, 100+노후설계서비스, 부부은퇴학교, 행복설계아카데미 등	
민간 일반 기업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중공업, KT, (사)은퇴연구협회, 공무원연금공단 등	경력컨설팅센터, 변화관리프로그램, 퇴직지원프로그램, 생애설계 프로그램, 전직지원프로그램 등	사내 퇴직예정자, 근로자, 임원 등

자료: 고령여성 인력개발 인프라 강화 및 생애 후반기 역량강화 지원방안 연구(2013) 재구성

3.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생애설계교육 현황

지난 5월 서부캠퍼스의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50+학습지원단과의 회의가 있었다. 회의에 참석하신 학습지원단 한 분이 “50+교육이 성공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무엇인지 반문하시면서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의를 내려주셨다. “무조건 재미있어야 한다. 즐거워야하는데, 재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익해야하며, 수강생들의 절실함이 같이 있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셨다. 이 세 가지 맥락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지향하고 있는 교육이 ‘생애설계적’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말한다.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인생재설계, 커리어모색, 일상기술학부

캠퍼스에서 진행되는 교육과정은 ‘생애설계교육프로그램’으로 명명되어 있지는 않다. 생애7대 영역을 다 다루고 있는 기존의 생애설계 프로그램을 거부하며, 노후설계나 전직지원의 개념을 지양한다. 캠퍼스에서는 진행되는 교육과정 하나하나에 생애설계적 관점을 가지고 교육을 설계하려고 노력한다. 예를 들어, ‘내 삶이 담긴 집짓기’라는 과정이 있다. 이 과정은 집을 짓기에 필요한 기자재가 무엇인지, 어디에 땅을 사야하는 지를 알려주는 과정이 아니라 장차 나는 누구랑 살 것인지, 남은 인생을 누구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를 배우는 과정이다. 관계와 공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50플러스캠퍼스 교육은 수강할 대상자들의 목적을 고려해 세 개의 학부를 두었다. 생애설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성찰’을 위해 정체성과 자기 인식이 가능하도록 한 ‘인생재설계학부’는 인식의 전환, 자기 자신의 성찰을 ‘책’이나 ‘그림’ 등 인문학적 소재 등을 통해 나와 다른 사람, 관계를 인식할 수 있게 구성하고 있다. ‘커리어모색학부’는 은퇴 후 인생을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탐색’하기 위한 과정들로 운영하고 있다. 캠퍼스 교육은 직업교육 훈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50+세대는 제2의 인생을 스스로 꾸려갈 자산, 경력, 연륜이 있다는 믿음 하에 경력을 바탕으로 일과 활동의 재구성을 돕는 것이다. 따라서 인생 후반기에 준비하는, 혹은 생각해볼 수 있는 직업과 일거리, 활동거리를 탐색하는 기회를 교육과정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일을 하느라 일상의 기술, 소소한 즐거움을 누릴 수 없었던 50+세대를 위해 ‘일상기술학부’를 통해 여가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일련의 교육과정을 통해 인생후반을 어떻게 ‘구상’해 나갈지를 ‘커뮤니티’를 매개로 지원하고 있다.

구분	교육과정 및 활동지원	프로그램 예
인생재설계학부	50+세대가 인생후반전을 새롭게 계획하는 데 필요한 총론을 익히고, 실천 전략을 구체화하는 학부. 노후에 관한 인식 전환, 경력 관리, 창업이나 비영리 영역 활동과 같은 새로운 인생경로 탐색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구성.	50+인생학교 고전탐구, 인문여행 공동체 주거, 생애설계상담소
커리어모색학부	일과 노동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하고, 사회공헌을 추구하는 새로운 커리어 경로를 모색하는 학부. 각 과정 수료 후 사회공헌 현장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연결하거나 인큐베이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50이후의 새로운 경력을 살펴보는 입문과정/ 원하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탐구해 보는 분야별 탐색과정 및 전문성을 익히고 실제 커리어 활동을 이어나가는 전문기관 제휴과정으로 구분	양코르커리어특강, 협동조합 탐구, 사회적기업 창업, 강의콘텐츠영상제작, 강사양성과정, 도시재생활동가 도시민박창업
일상기술학부	인생후반전의 하루하루를 자립적으로, 즐겁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건강, IT, 인문·사회 등 각 분야의 필수 생활기술 과정과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문화교양 교육 위주	요가, 근력운동, 사진교실, 드로잉, 해금, 대금, 합창
커뮤니티플러스	50+세대가 동료와 기획한 프로젝트의 실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50+세대 최소 3명 이상이 만나 자신들의 지식, 재능, 경험, 활동을 공유. 캠퍼스 프로그램 참여 후 동기들과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서, 50+세대의 생애설계, 신문화확산, 경력설계, 지역사회운동, 자원봉사 등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위해서 결성	50+글로벌라이프 루덴스탱고, 50+사회적기업창업연구회, 서울사랑오키나, 도시농부텃밭친구들, 수채화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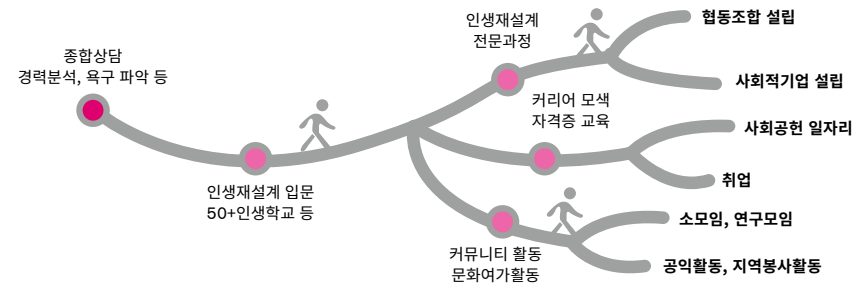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은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함(<http://50plus.or.kr/education.do>)

배움이 배움으로써 끝나고 자신만의 학습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혹은 앞으로 더 잘 살기 위한 준비를 이끌어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과정의 모델이며 많은 50+세대가 원했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의 전환, 세상을 보는 관점의 변화,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에 교육이 일단 재미있고 즐겁기를 희망한다. 교육과정을 통해 여행을 함께 할 동료 를 만나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과 협동조합을 만들어가고, 공연을 같이 할 음악 밴드를 구상하는, 이러한 관계와 소통이 활동거리로 이어지는 일련 의 과정으로 설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50플러스의 교육이 다른 기관과 차별성을 갖는 독특한 생애설계교육을 실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50플러스캠퍼스의 교육 체계

50+상담센터에서 종합상담을 시작으로 관심 분야에 따른 교육과정, 커뮤니티 연계, 지역사회 활동 및 사회공헌 일자리 과정 등으로 연계

그림 1



4. 더 긴 배움과 더 가까운 나눔을 실현하는 50+생애설계교육

생애설계 교육이란, 교육과정을 매개로 자발적이면서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과 생애를 설계하는 능력을 키움을 뜻한다고 생각한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대표적 교육과정으로 <50+인생학교>가 있다. 50+세대라면 누구나 다 거쳐 가길 바라는, 언젠가 인생후반기를 위한 의무교육이 되기를 희망하는 <50+인생학교>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해 스스로의 변화를 가져오기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성인들은 경험을 통해 ‘쓰임새’ 있는 ‘의미’를 재구성하여 삶의 현장에 서 실천 가능한 것들을 생성해내고, 그 과정 속에서 성찰을 거쳐 지나 온 삶들을 반추함으로써 다양한 경험의 재구성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현재 삶에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는 것(한준상, 2007)이라는 정의가 이토록 맞아떨어지는 교육의 현장이 있을까? 50+세대는 서울시50+캠퍼스에 와서 자신들의 경험을 50+교육과정을 발현시키면서 미래를 설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개인의 미래를 설계하고 인생 후반기의 또 다른 계절을 맞이하다보면 50+세대들이 산재해 있는 우리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조력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50+교육이 50+세대가 인생 후반의 계절을 잘 준비하는 매개자이자 촉진자이길 원한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생애설계적 관점이 될 것이다. 인생의 거친 파도를 헤쳐 온 세대인 만큼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라는 순풍 속에서 잠시 닻을 내리고 쉬어가거나 순항할 수 있는 힘을 키우도록 교육 담당자로서 더 깊게 성찰해야 함을 느낀다.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2013). 고령여성 인력개발 인프라 강화 및 생애 후반기 역량강화 지원방안 연구.
- 서울특별시 인생이모작지원과(2015). 서울시50+세대 인생이모작 실태 및 욕구조사.
- 한준상(2007). 교육자본론. 서울: 학지사.
- 황윤주(2015). 중년기 기혼여성 재취업과정에서의 학습경험 유형 연구. 서울: 중앙대학교대학원 박사논문.
- Erikson, E. H.(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Y: Norton.
- Houle, C. O.(1961). The inquiring mind. Madison, WI: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Levinson, D. J.(1978). The Seasons of a man's life. New York, NY: Ballantine.



전직지원서비스에 앙코르커리어를 더한 앙코르커리어센터

정수안

서울시50플러스재단 일자리사업본부 PM

1. 퇴직 후 나의 오늘은?
2. 앙코르커리어센터, 인생후반기 내 삶의 스케치가 시작되는 곳
3. 50+ 삶에 색을 칠하다

16

서울시50플러스재단 앙코르커리어센터는 ‘퇴직(예정)자의 앙코르커리어 전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해 50+세대의 퇴직 후 인생재설계를 지원하고 있다. 기존의 전직지원서비스가 생계형, 일 중심이었다면 센터의 교육은 개인의 삶과 사회적 가치 전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자신의 역량과 경험을 사회적 경제, 사회공헌 분야 등에 활용하여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곳이 앙코르커리어센터다. 특히 ① 현장(의뢰기관 및 교육 참여자)의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콘텐츠, ② 사람책과 참여형 실습형 과정 등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교육 운영방식, ③ 50+캠퍼스의 상담과 교육, 커뮤니티 및 50+인재풀과 연계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는 타 기관 전직교육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을 더하고 있다.

1. 퇴직 후 나의 오늘은?

퇴직 후 오늘을 상상했을 때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가? 오늘을 바쁘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퇴직은 먼 얘기고, 바쁜 일상 중 쉴 수 있다는 안도감조차 드는 그런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퇴직을 앞두고 있는 사람 혹은 이미 퇴직한 사람들의 오늘은 ‘쉽’보다 ‘불안’이고, ‘설레임’보다 ‘우울’에 가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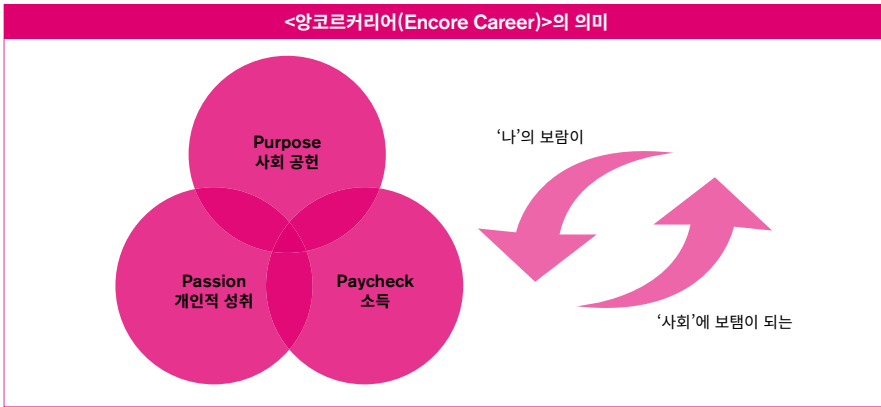
여러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예퇴직, 조기퇴직 등의 관행으로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연령이 남성 51.6세, 여성 47.0세로 10명 중 6명이 50세 전후에 퇴직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2017.3 고용동향 브리프). 이런 흐름은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제 은퇴란 위기보다 기회,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어야 하는 이유이며, 이전에는 없었던 ‘앙코르커리어Encore Career’라는 새로운 인생의 단계를 만들어야 하는 시대가 왔음을 의미한다.



2. 앙코르커리어센터, 인생후반기 내 삶의 스케치가 시작되는 곳

앙코르커리어센터를 설명할 때 처음 듣는 질문이 ‘앙코르커리어센터? 앙코르커리어가 뭐가요?’이다.

‘앙코르커리어’의 개념이 아직 널리 확산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와 닿지 않는 용어일 것이다. ‘앙코르커리어’는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시빅벤처스Civic Ventures의 설립자 마크 프리드먼Marc Freedman의 저서 <앙코르(Encore, 2009)>에서 소개된 개념으로 ‘작지만 지속적인 수입원이 되고 개인의 삶의 의미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인생후반기 일자리’를 말한다. 이런 앙코르커리어의 개념을 기존의 전직지원서비스에 더하여, 좀 더 실효적이고, 개인의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경로의 인생후반기 로드맵을 제시하는 곳이 앙코르커리어센터다.



앙코르커리어센터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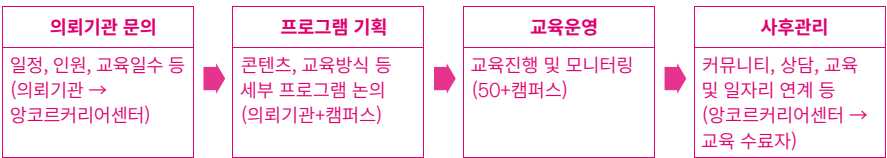
앙코르커리어센터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2016년부터 추진해 온 앙코르커리어 전환교육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17년 12월에 만들어졌다. 기존 전직교육이 생계형 재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이론 중심 프로그램으로 설계되어, 교육 후 연계가 미흡했다면 앙코르커리어센터의 프로그램은 사회적 경제, 사회공헌 부문에서의 앙코르커리어를 지향하며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 사후연계 강화를 통해 개인별로 더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년차에 들어선 앙코르커리어 전환교육은 지금까지 5개 공공기관 320여명의 퇴직(예정)자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150여 명에 대한 교육이 예정되어 있다.

추진절차 및 참여주체별 역할

양코르커리어 전환교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의뢰기관 퇴직(예정)자들의 니즈(needs)를 조사하고, 참여인원 및 시기를 정하여 양코르커리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가 오면 양코르커리어센터는 해당기관의 요구를 가장 적합한 50+캠퍼스를 매칭 하여 전체 프로그램의 기획회의를 진행한다. 의뢰기관, 양코르커리어센터, 50+캠퍼스의 교육 담당자가 수요자의 요구에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콘텐츠, 교육 방법, 일정 등)을 설계하고, 교육 후에는 의뢰 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만족도 조사결과, 교육 참여자 의견을 공유하여 다음 번 교육에 반영한다. 교육운영 후에는 퇴직 연차별, 참여자의 관심 분야 등에 맞춰 커뮤니티 지원, 상담지원, 교육 및 일자리 정보제공과 같은 사후관리가 진행된다.

<양코르커리어센터> 추진 절차

표 1



<양코르커리어센터> 참여주체별 역할

퇴직(예정)자	의뢰기관(공공기관)	50+캠퍼스	양코르커리어센터
·수요조사(필요시) ·교육참여 ·50+포털 활용	·추진방향, 인원, 시기 등 협의 ·교육 프로그램 기획 협력, 비용지출	·프로그램 기획, 협의 및 조정 ·계약체결(필요시) ·교육운영, 사후관리	·콘텐츠 고도화 ·수요기관과 캠퍼스 연계 ·홍보, 행사

양코르커리어 전환교육에 참여하는 퇴직(예정)자는 서울시50플러스포털 (<http://50plus.or.kr/selfDiagnosis.do>)의 자가진단 메뉴를 활용하여 생애 7대 영역(재무, 건강, 가족, 사회적 관계, 여가, 일과 자기계발, 사회공헌)에 대한 설문을 작성하고 50+인재뱅크에 등록한다. 이는 필수 과정은 아니나 사후관리 시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상담이나 지속적인 교육 및 일자리 정보가 제공되고, 개인별 활동의 누적된 데이터는 참여자의 양코르커리어 이력을 관리하는 좋은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양코르커리어센터 특징 및 교육과정

양코르커리어센터가 다른 기관의 전직교육과 차별화되는 부분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양코르커리어센터> 특징

표 2

구분	특징
프로그램	·의뢰기관의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과정 운영 ·양코르커리어 중심의 내용구성 (사회공헌 활동, 새로운 관계정립, 양코르일자리)

구분	특징
운영방식	·사람책*, 참여형 워크숍, 현장답방 프로그램 등 능동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운영방식 ※ 사람책: 양코르커리어를 향해 활동하고 있는 사람의 실제 사례와 Q&A
사후관리	·관심분야에 대한 교육, 일자리 등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활동연계 ·50+상담센터와 연계한 1:1 개별상담 지원 ·50+포털을 활용한 지속적인 양코르커리어 이력 관리

양코르커리어센터의 전환교육 프로그램은 기관별 요구에 따라 다르지만, 다음과 같은 구성이 된다.

예시 1 1일 프로그램

구분	분류	주요내용
1일	특강	• 마음열기, 새로운 관계 정립 -50+관계의 전환, 50+부부관계 등 새로운 관계에 대한 특강
	50+정책 및 사업안내	• 서울시50+정책에 대한 소개와 캠퍼스 활용 안내 -보람일자리 등 50+ 정책소개, 정보제공 -캠퍼스 공간 소개 및 활용 안내
	50+캠퍼스 체험하기 (선택교과)	• 50+자존감 여행(주제: 20년 전의 나와, 20년 후의 나) -캠퍼스 대표강자인 50+인생학교'프로그램 체험 -교육연극, 참여형 워크숍 방식 진행
		• 50+생애설계상담소(주제: 동년배 50+컨설턴트와 함께하는 생애 7대 영역 준비도 점검) -생애 7대 영역 중 관심 있는 분야별 분반, 해당분야 전문 컨설턴트 배치 -질의응답, 참여형 워크숍 방식 진행
		• 사람(人)+나무(木)=쉼(休) '목공교실' • 아트와 원예의 만남 '아트앤가드너' -캠퍼스의 일상기술학부 프로그램 체험 -캠퍼스의 시설을 이용한 체험가능(목공, 요리, 도예 등)
	사람책	• 퇴직선배와의 만남 -퇴직선배에게 직접 듣는 양코르커리어 이야기

예시 2 3일 프로그램

구분	분류	주요내용
1일차	강의	• 마음열기
		• 50+정책 바로알기, 50+캠퍼스 100배 활용 노하우 -50+ 정책소개, 캠퍼스 공간 소개 및 활용 안내
	특강 (선택교과)	• 50+변화 인식하기 -내 삶의 지도를 그리는 50+의 시간
		• 인생후반전, 양코르커리어 -양코르커리어 개념, 국내외 사례 소개
	참여형 워크숍 (선택교과)	• 사람책(작지만 의미 있는 도전) -퇴직선배와의 만남을 통해 시행착오, 성공사례 공유 -아름다운서당(단체편), 문래동 예술촌(사람편)
		• 자아탐색 워크숍 -예술로 풀어보는 나의 이야기 -정체성 세우기, 자기표현과 관계의 확장

구분	분류	주요내용
2일차	특강 (선택교과)	• 행복한 인생후반전, 일과 삶의 재구성 -인생 다모작 시대의 50+Life Design -일과 커리어의 성공적 전환
		• 노후자산 관리와 금융의 이해 -개인연금 및 공공연금의 효과적 운용방안 -생활 속 금융관리 주의점, 자산관리 방법
	실습	• 스마트폰으로 세대공감하기 -SNS 속 소통의 기술과 트렌드 -스마트폰을 통한 콘텐츠 제작 및 창업창직 스토리
	상담컨설팅	• 50+생애설계 상담소 -동년배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 하는 생애 7대 영역별 고민 풀어보기
	참여형 워크숍 (선택교과)	• 조금은 다른 삶, 놀이와 여가에 관한 발상 전환 -작지만 의미있는 도전, 자신의 숨은 열정과 역량 발견하기 -커뮤니티 구성을 통한 자체 프로그램 기획하기
		• 살아보니 6075가 인생 최대 전성기 -은퇴 후 새로운 인생 설계의 기획 -각자의 생각을 나누고 퇴직에 대한 감정 공유하기
3일차	사람책, 현장탐방 (선택교과)	• 새로운 일상의 경험, 씬과 락! -귀농체험 -마을살이사업, 지역로컬푸드 재배부터 쿠킹까지
		• 농촌에서 찾아보는 내일 -동년배 현역에게 듣는 ‘농촌에서 만들어낸 내일’ -마을공동, 마을재생사업 사례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한 로컬푸드와 슬로우푸드 체험 -지역의 농특산물과 연계한 특화사업 체험

이런 교육 프로그램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의뢰기관과 교육 참여자의 니즈를 반영해 교육일수부터 세부 커리큘럼까지 기획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향후 계획

양코르커리어센터는 지난 3년간의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교육콘텐츠 개발과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사후관리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50+캠퍼스마다 특화 되어있는 교육과정과 모두의 부엌(요리), 손끝교실(목공), 상상제작소(도예)와 같은 시설을 활용하여 캠퍼스별 특화콘텐츠, 중소기업 대상 프로그램 개발, 퇴직연차별 콘텐츠 및 사후관리, 양코르커리어센터 수료자를 대상으로 한 자체 강사 양성, 양코르커리어 전환지원 프로그램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할 당사자 중심의 양코르커리어 서포터즈 양성, 수료자 중심의 커뮤니티 지원 등이 그것이다. 교육 대상자 또한 공공기관 퇴직(예정)자에서 양코르커리어센터의 방향성에 맞는 민간기관으로 확대해 시장의 수요증가와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예정이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은퇴 후 50+세대의 양코르커리어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강

3. 50+ 삶에 색을 칠하다

은퇴라는 이름의 하나의 막이 내려졌을 때, 어쩌면 그게 끝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아무도 외쳐주지 않는 인생의 양코르 무대에 스스로 내려진 막을 걷고 나오는 것은 누구나 쉽지 않다. 하지만 여기, 당신의 새로운 인생 후반전에 조용히 양코르를 외치며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양코르커리어센터에서 만나게 될 새로운 동년배와 후배, 선배가 그들이다. 그러니 이제는 무대로 나오기만 하면 된다. 또 다른 시작을 두려워하기보다 유쾌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조용한 양코르에 응답해주면 된다.

양코르커리어센터는 당신을 위한 하얀 도화지와 다양한 색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



후반기 인생설계를 위한 출발, 50+상담의 정체성과 체계화를 고민하다

이은정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1. 50+상담 연구의 배경
- 2. 50+상담 연구의 과정
- 3. 50+상담 연구의 결과

17

50+상담의 수요와 공급이 확대되는 가운데, 실효성 있고 질 높은 인생재설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담시스템 현황을 검토하고 보다 체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는 2017년 <50+상담센터 콘텐츠 개발 연구>와 <서울시50+종합상담 시스템 구축 연구>를 추진하였다. 해당 연구들은 기존 상담사업의 운영현황 및 이용자들의 참여실태 및 수요 등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50+상담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1. 50+상담 연구의 배경

대규모 인구집단인 베이비붐 세대가 대량 퇴직에 직면하면서 후반기 인생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베이비부머의 중년기는 고령화로 인해 길어졌는데 막막함과 불안감은 팽배해있는 현실이다. 민선 6기 서울시는 이러한 시대 변화 및 세대 특성을 파악하고 베이비부머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관련 주요 정책이 서울시 50플러스(이하50+)정책이다.

서울시50+정책의 주요 대상은 50-64세 인구집단이다. 베이비부머는 한시적 코호트이므로 누구나 살아가면서 고민하게 될 인생주기로서 50-64세 인구집단을 50+세대로 명명하고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정책은 지난 2년 반 사이에 국내외적으로 큰 관심을 받아왔는데, 여기에는 50+세대가 우리 사회에서 상당한 규모를 차지한다는 점(서울시50+세대의 경우 서울시 전체 인구의 약 20%)뿐만 아니라 이후 세대에게 새로운 인생모델의 비전이 되는 모든 세대의 이슈이기 때문이다.

서울시50+정책을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에 대해 그 전략과 방법을 두고 많은 고민들이 있었다. 초기 그 고민이 정리되어 발표된 것이 2016년 5월의 ‘서울시50+지원종합계획’이다. 이 종합계획의 핵심은 50+세대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통합적으로 반추해보면서 인생후반기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50+정책의 핵심 사업에 상담, 교육, 일자리 사업 등을 핵심적으로 기획되었다.

50+정책의 핵심 사업들 가운데, 50+상담 사업은 컨설턴트들이 서울시의 권역별 50+캠퍼스 및 자치구의 50+센터에 배치되어 진행하고 있다. 현장

에서는 50+상담에 대한 높은 수요가 확인되는데, 50+캠퍼스 상담센터의 상담건수를 살펴보면 2016년 6,948건. 2017년 18,550건으로 급증해왔다. 또한 2020년까지 50+캠퍼스 및 50+센터의 확대와 함께 50+상담서비스의 공급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50+상담의 수요지형과 공급지형이 확대되는 가운데, 시민들에게 보다 실효성 있고 질 높은 인생재설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담시스템 현황을 검토하고 보다 체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는 2017년 50+상담 정책 및 사업의 체계화를 위한 연구들을 추진하였다. 하나는 상담의 표준적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정립하기 위한 <50+상담센터 콘텐츠 개발 연구>였으며, 다른 하나는 상담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서울시50+종합상담 시스템 구축 연구>였다. 해당 연구들은 기존 상담사업의 운영 현황 및 이용자들의 참여실태 및 수요 등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고, 이를 토대로 50+상담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2. 50+상담 연구의 과정

관련 연구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장년층 대상으로 한 상담 관련 선행연구 및 국내·외 자료 등의 분석은 기본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다. 1) 우선, 서울시50+상담사업 현장 관계자를 중심으로 50+상담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관계자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2) 다음으로, 서울시50+상담시스템 구축 현황 분석을 위해 총 면담조사가 실시되었다. 현장에서 실제 실무를 맡고 있는 컨설턴트들에 대한 개별 혹은 집단 면담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3) 그리고 서울시50+상담 현황을 통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이다. 설문조사는 수요지형 대상의 ‘서울시50+상담서비스 수요 및 이용만족도 조사’와 공급지형 대상의 ‘서울시50+상담사업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현황 조사’ 2가지로 구분되어 실시되었다. 3) 또한 서울시50+상담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시스템 구축 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50+상담의 기능과 범위 정립, 상담 프로세스의 체계화, 50+컨설턴트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체계, 50+상담의 질 관리 방안 등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이 진행되었다. 4) 특히, <50+상담센터 콘텐츠 개발 연구>에서는 현장 필요성 및 활용성 높은 콘텐츠 개발 위해 50+컨설턴트들의 참여연구로 진행되었으며, 전문성 있는 콘텐츠 개발을 위해 상담전문가 슈퍼비전을 운영하였다.



50+상담 연구 진행을 위한 50+컨설턴트 인터뷰 모습

3. 50+상담 연구의 결과

50+상담의 정체성을 고민하다

50+상담의 정체성은 후반기 인생설계 종합상담, 동년배 상담, 그리고 교육 및 활동·일과 연계된 상담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후반기 인생설계 종합상담

50+상담의 가장 큰 특징은 50+세대들의 다양한 이슈 가운데서도, 특히 후반기 인생설계를 지원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인생후반전을 통합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목적의 종합상담이다. 50+세대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통합적으로 반추해 보면서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역들 예컨대, 일·재무·사회공헌·사회적 관계·가족·여가·건강·재무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인생 전반에 대한 기초적인 점검을 한다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내담자가 제기하는 호소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을 위한 주요 정보를 제공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보다 깊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될 시 내담자의 동의 등을 거쳐 전문가에게 의뢰 및 연계하여 호소문제가 해소되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함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서 남은 인생의 후반기를 균형 있고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0+상담-교육-활동의 연계



자료: 이은정(2017). 상담자의 책. 서울시50플러스재단. p.19

동년배 상담

서울시50+상담의 또 다른 핵심은 '동년배 상담'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시대를 살아오며 비슷한 경험과 특성을 가진 50+동년배가 그들의 인생경험 및 직업경험, 그리고 인생설계를 위한 상담 전문성을 바탕으로 50+세대를 상담하는 것이다. 동년배로서 상담자의 가장 큰 장점은 같은 세대의 고민을 이해하며 따뜻한 정서적 지지를 보낼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문화적 환경과 경험을 공유하는 동년배가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도움을 구하는 사람과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 사이에 공감대가 쉽게 형성되고, 동일 시대와 연령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관심사와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하는데 직접적이고 가장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학습과 활동·일의 촉매제로서 상담

50+상담의 큰 방향성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50+세대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게 지원하고, 50+세대의 역량을 필요로 하는 사회 곳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길 찾기를 이끌어 주는 것이다. 그래서 50+상담은 50+세대들이 의미 있고 즐거운 인생 후반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서적 지지와 함께 실질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방법을 탐색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상담으로만 그치지 않고 이후 인생후반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교육과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 상담을 통한 탐색이 배움을 통한 인생후반기 준비로, 그리고 이러한 탐색과 배움의 결과들이 실제 사회활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연계성에 대한 기획이 필요하다. 이는 후반기 인생설계를 시작하는 막막한 단계에서, 교육을 받으며 관심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학습의 단계에서, 그리고 실제 삶에 적용해보는 활동 등 일련의 과정마다 효과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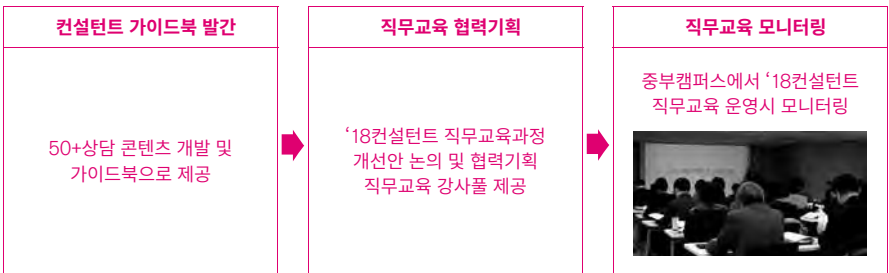
상담 시스템의 체계화를 고민하다

2017년 관련 연구들에서는 50+상담의 시스템 현황을 상담사업 추진체계 측면, 상담인력 전문성의 측면, 50+상담센터 운영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각각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그 개략적인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50+상담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로서, 사업의 관리 체계와 대내외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필요성 및 그 세부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둘째, 50+컨설턴트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전문성이 강화된 사전교육 및 보수교육 운영, 상담 윤리 규정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셋째, 그 밖에 상담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상담의 표준 정립, 환경 구축, 데이터 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홍보 전략 수립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현장 활용도 높은 산출물을 고민하다

연구자는 위의 연구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연구보고서뿐만 아니라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산출물들을 제작하였다. <50+상담센터 콘텐츠 개발 연구>를 통해서서는 발굴된 콘텐츠를 토대로 1) 50+상담 콘텐츠의 표준을 정리한 컨설턴트용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상담 사업 관계자들에게 배포하였다. 또한 2) 시민들이 50+상담 내용 및 절차를 알기 쉽게 안내한 이용 가이드(소책자)를 제작 및 배포하였다. <서울시50+종합상담시스템 구축 연구>를 통해서 는 3) 상담 관련 공통 양식과 가이드를 개발하여 캠퍼스 및 센터에 배포하였으며, 4) 50+상담통계프레임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상담 DB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5) 또한 위의 연구들을 토대로 2018년 컨설턴트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과정을 협력 기획 및 모니터링 하였다. 이처럼 연구가 문서 안에 갇힌 연구로서만 끝나지 않고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2017년은 서울시50+정책 2년차로서 50+정책을 연착륙시키는 단계를 지나 보다 체계화 및 고도화시켜야 하는 단계에 접어든 시점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된 2017년 50+상담 관련 연구들은 50+상담 사업의 현황들을 다 각도로 면밀히 점검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동시에, 현장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즉각적으로 적용하여 개선하는 실행연구적인 성격이 강했다. 이에 연구 결과가 가이드북으로 정리되고 가이드북은 곧바로 컨설턴트들의 직무교육과 현장실무에 활용되고 있다. 또한 50+상담통계프레임 또한 파일럿을 거쳐 현장에 적용되면서 개선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즉각적인 적용이 가능했던 이유는 연구 과정에서부터 정책 및 사업 관계자들,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들이 수렴되고 전문가들과의 밀접한 협력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과제는 산적해있다. 연구로부터 수면 위로 드러난 문제점들과 개선방안들 가운데 실천과제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다. 많은 사람들이 쏟아낸 현장의 문제점들과 개선의 아이디어들이 연구보고서의 문서로만 남아있지 않고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50+상담 사업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이은정(2017). 상담자의 책: 50+인생설계 상담 가이드북. 서울시50플러스재단.

이은정(2017). 서울시50+인생설계 상담통계 구축 연구. 서울시50플러스재단.

이은정, 김동민, 서영석, 이은경(2017). 서울시50+종합상담시스템 구축연구. 서울시50플러스재단.

당신의 삶을 설계하라, 디자인 유어 라이프 생애설계 프로그램

표성일

서울50+해외통신원(술잡 대표 컨설턴트)

- 1. 생애설계 개요
- 2. 50+ 정책 및 관련 프로그램 소개
- 3. 디자인 유어 라이프 워크숍 참석 및 진행 사항
- 4. 벤치마킹 포인트
- 5. 결론

18

미국과 국내의 50+세대의 생애설계 정책 현황과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필자가 직접 참여한 미국 ‘디자인 유어 라이프’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과 벤치마킹 포인트를 분석하여 세부적으로 소개한다. 뉴욕타임즈 선정 베스트셀러 도서 <디자인 유어 라이프>를 바탕으로 한 이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제언한다. 생애설계 영역을 간단히 구성하고, 이론 설명 대신 참여자들이 직접 활동하도록 하고,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하도록 하는 등의 포인트는 국내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1. 생애설계 개요

인간 기대수명의 연장은 이전과 달리 우리에게 더 오랜 삶의 시간을 안겨준다. 그러나 주어진 또 다른 긴 시간이 과연 축복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답을 주지 않는다. 삶을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그 시간을 축복의 형태로 바꾸려면 각자의 의지에 따라 선택하는 삶으로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의 변화 무쌍한 삶의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요인을 포함하고, 조화를 시도하는 가운데,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설계, 즉 생애설계가 필요하다.

생애설계란 ‘개인이 인생의 가치에 기초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의 실현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실행계획’으로 정의된다. 인생 100세 시대를 맞아서 이전보다 더 긴 삶을 살아가야하기 때문에 생애 전반의 보다 알차고, 보람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개인이 지닌 가치에 기초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실행방안을 세부적으로 수립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경력계획이나 은퇴설계와 같은 좁은 의미의 계획이 아니라 생애과정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생애설계와 관련된 내용들은 정부의 정책, 민간기업의 경영방침에 따른 질적인 삶 영위, 근로자 복지차원 등의 차원에서 강의, 워크숍 및 상담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본 원고에서는 국내 및 미국을 중심으로 50+관련 정책과 그에 따른 생애설계와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을 간략히 살펴보고, 미국의 ‘디자인 유어 라이프(Design Your Life, 당신의 삶을 디자인해라)’ 프로그램의 진행 내용을 세부적으로 소개하고, 국내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발전에 대한 제언으로 끝맺고자 한다.

2. 50+ 정책 및 관련 프로그램 소개

미국의 정책 및 프로그램

미국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베이비부머 세대가 존재하는데 1946년도에서부터 1965년도에 탄생한 베이비부머(52세~71세)들이 있으며, 인구 2억 6천만 중 약 29%를 차지하는 8천만 여명에 달하여 미국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대표적 예로 이미 50년 전에 ‘고령자 및 저소득층의 의료보험 및 보장 제도를 규정한 법(Medicare, Medicaid and the Older American Act)’을 입법하여 고령자에 대한 각종 정책수립의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매 10년 단위로 백악관 주도하에 ‘백악관고령화회의’를 개최하고 이후 1년 동안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고령화 관련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다. 법안 발의 5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2015년도에 열린 백악관고령화회의(WHCoA: White House Conference on Aging) 최종보고 자료에서 미국의 관련 정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정부와 민간의 주요 지원 분야는 아래와 같다.

표 1

1	퇴직안정	일자리 제공 노력, 사회안전제도 정보제공
2	건강한 고령화	건강유지 지원, 치매 등 예방, 평생학습 지원
3	장기요양	장기요양자 및 요양보호자 지원
4	고령자 정의구현	고령자의 학대, 범죄 노출, 사기 피해 방지

민간 기업에서도 근로자들의 퇴직과 관련하여 각종 생애설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비영리 기관을 중심으로 각종 프로그램 지원 및 관련 웹



2015년 백악관 고령화회의에서 연설하는 오바마대통령
자료: The 2015 White House Conference on Aging Final Report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퇴자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AARP)의 경우, 50+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행, 공연, 구직, 자원봉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AARP의 연간 회비를 내는 회원 수는 3,800만여 명에 이른다. 유사한 비영리조직인 미국의 앙코르닷오르그^{Encore.org}는 1998년도에 ‘시빅 벤처Civin Venture’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이래 미국의 20개 도시에서 활발하게 각종 고령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민간교육 기관에서도 필자가 중점적으로 소개할 ‘디자인 유어 라이프Designing Your Life’ 프로그램들이 다수 진행된다.

국내 정책 및 프로그램

국내의 관련 법령으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3897호)’이 있다. 이 법률에 따른 세부계획으로 2006년 9월에 고용노동부가 고령시대에 대비하여 ‘제1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최초로 발표하였으며, 2012년 1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2014년 9월에 고용노동부에서 ‘장년고용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최초로 ‘장년에 생애단계별 맞춤형 고용대책 추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세부 추진과제로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도입’이라는 내용을 추가하면서, 처음으로 생애설계라는 단어가 정부정책에 반영되었다. 이어서 2016년 9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년고용대책’을 발표 시 ‘생애경력설계 기회 확충’이라는 추진과제의 세부 추진과제로서 ‘생애경력설계 참여기회 및 참여대상 확대’, ‘생애경력설계 제공 인프라 확대 및 프로그램 내실화’를 명시하였다. 정부계획에서 밝힌 ‘생애경력설계 서비스’는 ‘장년근로자가 경력, 퇴직 후 계획 등을 미리 점검하여, 평생경력계획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정의된다. 더불어 보건복지부에서도 ‘노후준비 지원법(법률 제13365호, 2015.6.22)’을 제정 및 시행 중에 있으며, 매 5년마다 ‘노후준비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한 가운데,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에서는 건강, 대인관계, 여가, 재무 등 영역별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17년 6월 하순에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 50, 60대의 인생 이모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신중년 재충전센터’를 설치하여 ‘생애경력설계 교육과 상담’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발표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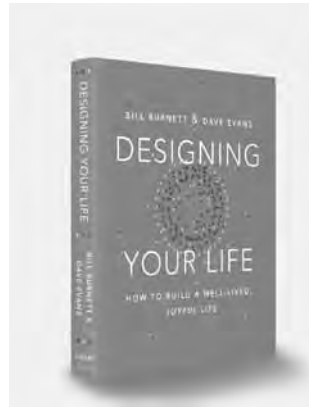
위와 같은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민간 기업에서는 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력개발, 생애설계 등의 이름으로 다수의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공공기관을 살펴보면 노사발전재단의 ‘장년나침반 프로젝트’,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생애설계와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이 있다. 민간교육기관의 프로그램으로는 한국생애설계사협회의 생애설계사 양성을 위주로 하는

‘생애설계사 교육’, 블룸컴퍼니에서 긍정심리를 중심으로 워크숍 형태로 진행하는 ‘인생디자인캠프’, 그리고 인생도서관에서 과거, 현재의 패턴을 탐색하여 미래를 설계해보는 ‘미트릭스Me-Trix’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

3. 디자인 유어 라이프 워크숍 참석 및 진행 사항

디자인 유어 라이프 프로그램 참여 동기

필자는 다양한 생애설계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고자, 국내에 있는 다수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더불어 우리보다 일찍 고령화 문제를 경험한 미국의 생애설계 프로그램을 참고하고자, 미국 뉴욕타임즈에서 2016년도 베스트셀러로 선정된 빌 버넷Bill Burnett 박사와 데이브 에번스Dave Evans박사의 저서인 ‘디자인 유어 라이프Design Your Life’라는 책을 처음 접하게 되었다. 이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1일 생애설계 프로그램 ‘디자인 유어 라이프Designing Your Life’ 워크숍에 참여하게 되었다.



< Design Your Life>
빌 버넷&데이브 에번스 공저



디자인 유어 라이프 워크숍 현장모습 1

진행 세부사항

비용 및 강의장

전체적으로 8시간 30분에 걸쳐서 진행된 과정은 사전등록^{early bird}시에는 약 95만원, 일반 등록 시에는 약 110만 원 정도의 수강비용을 지불한다. 강의장은 사우쓰 샌프란시스코의 일반 주택가 속에 위치한 ‘더 히얼 컬렉티브’^{The Here Collective}라는 이름의 창고형 강의장에서 실시되었다. 참여자는 총 59명이었으며, 연령대는 20대에서 60대 초반에 이르렀으며, 대부분 40대, 50대로서, 그 중 50대 이상은 전체적으로 30% 정도를 차지하였고. 참여자들의 국적은 미국, 영국, 러시아, 컬럼비아, 중국, 대만, 태국,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한국 등이었다.

워크숍 진행(사전과제)

워크숍에 등록한 참여자들에게는 사전과제가 부여되었는데, ‘자신의 직업관 ^{workview}과 인생관 ^{lifeview}’에 대해서 A4지 1/2분 분량의 에세이를 작성하여 워크숍에 지참하도록 한다. 인생관과 직업관은 개인의 미래 방향을 정하는 나침반 ^{compass}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나침반의 두 축을 인생관과 직업관으로 하는 가운데 진북 ^{true north}, 즉 삶의 목표를 찾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다. 우선 직업관은 ‘일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으로서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그 일은 왜 하는가?’, ‘좋은 일은 어떤 것인가?’, ‘자신의 철학’ 등을 생각해 보는 것이었으며, 인생관은 ‘세상과 세상의 이치’속의 자신을 찾아보기 위한 목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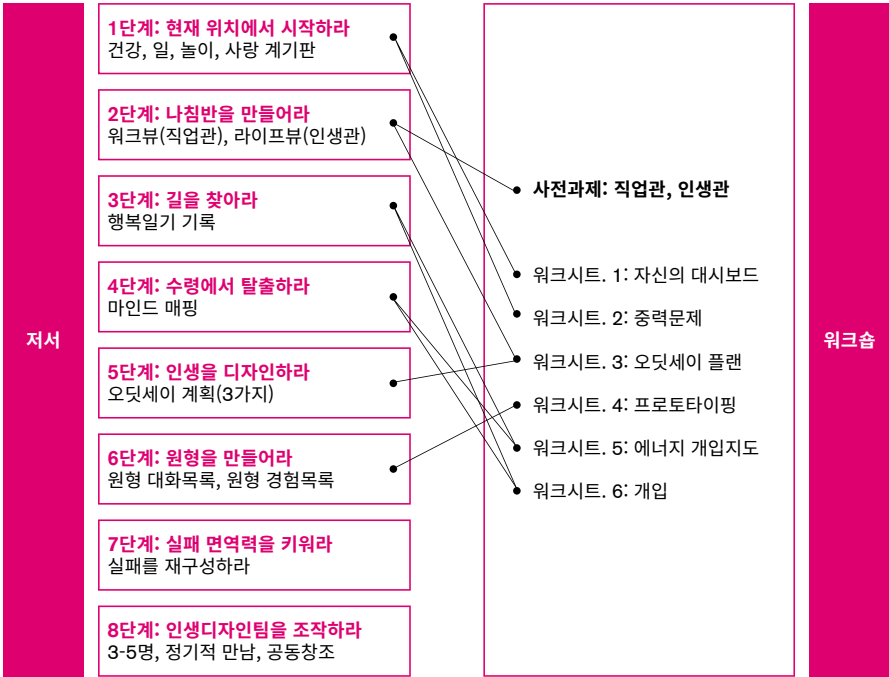


디자인 유어 라이프 워크숍 현장모습 2

워크숍 진행(현장 진행)

진행자 빌 버넷 박사 등이 저작한 워크숍 내용의 근간인 ‘디자인링 유어 라이프’ 책자와 실제 워크숍에서 진행된 내용을 비교해보면 <그림 1>과 같다. 워크숍 교재는 워크시트 6장과 필기할 수 있는 노트 3장으로 구성되고, 워크시트 6장은 진행시 각각의 주요 국면에 사용한다.

그림 1 DYL 저서의 설계단계와 워크숍 진행내용 비교



아이스브레이킹

먼저 전체 참여자들이 테이블에서 일어나 큰 원을 그린 상태로 각자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는다. 개인적으로 간단하게 ‘이름’,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10세 전후의 어릴 적 꿈이 무엇이였는지?’ 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서로를 알아간다. 서로의 다양함과 과거의 꿈을 공유해보는 시간이다. 진행자는 인간 사회의 다양함을 강조하였으며, ‘생애설계는 각자의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조별로 자신의 성공스토리 이야기하기

아이스브레이킹이 끝난 이후 6명으로 구성된 조별로 각자 자신의 성공스토리가 무엇인지를 조원들에게 이야기하고 각자가 내리는 성공의 정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이 진행된다. 진행자는 ‘인생은 풀어야할 문제가 아니다. 인생은 개입해야할 모형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즉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을

문제로 보면 부담감을 가지는 가운데, 자신을 압박하기 때문에 해결이 힘들다고 하면서, 자신을 압박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생애를 설계하라고 주문하였다. 진행자는 결론으로 ‘풀려고 노력하지 말고, ‘자신만의 나아갈 길을 디자인하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워크시트 1-자신의 대시보드(dashboard) 작성

디자인 유어 라이프 워크숍은 ‘사랑’, ‘놀이’, ‘건강’, 그리고 ‘일’이라는 4대 영역을 중심으로 생애설계를 한다. 먼저 위 4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자신의 현 상황에 대한 만족도를 대시보드 상의 0에서 부터 10사이의 해당되는 부분에 표시를 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미래의 희망사항을 다시 표시해본다. 표시된 두 가지를 비교하여 그 차이에 대한 질문을 개인에게 해보는 방법이다. 진행자는 ‘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4개 영역이 충만해도 불행할 수 있으며, 2개 영역만 충만해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안들의 균형이라고 하면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그런 형태의 균형은 진정한 균형이 아니라고 언급하면서, 결론적으로 ‘진정 자신에게 맞는 유연한 혼합을 찾아라!’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워크시트 2-중력문제

중력문제는 우리가 지구상에서 겪는 중력과 같이 어찌할 수 없는 문제에 빗대어 말한 것으로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일컫는다. 먼저 자신이 직면한 도전 중 중력문제를 식별하고 서술한 이후에, 그 문제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재구성(reframe)을 통해 새롭고, 더욱 실행가능한 문제로 바꾸어보는 연습이다. 다시 말하자면, 중력문제를 실행 가능한 문제로 재구성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 구상으로 이어진다. 예를 들면, 자전거 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항상 자전거가 너무 무겁다고 생각을 하면서 힘들어하지만, 자전거의 무게는 근본적으로 지구의 중력문제로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어서 가벼운 자전거를 가지는 방법으로 생각의 재구성을 해보는 국면이다. 진행자는 우리가 가진 ‘중력문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그 문제를 수용한 이후 재구성을 통해 실행가능한 문제로 바꾸어보아라. 더욱 자유로워지는 것이 결론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워크시트 3-오디세이 플랜 3가지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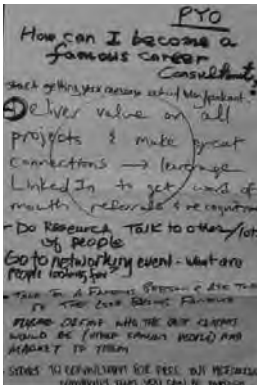
인생의 몇 가지 대안을 수립하는 국면으로서, 오디세이 계획이라는 부르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 자체가 모험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이는 향후 5년 이내에 실행해 볼 3가지 대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첫째, 현재하고 있는 일에 다른 발전적인 내용을 추가해보는 것이며(플랜A), 둘째는 플랜A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예비계획(플랜B)이다. 셋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을 할 때에 외재적 가치로 고려하는 돈과 이미지의 문제가 없다면 추진하고픈 계획(플랜C)을 수립한다. 플랜A, B, C는 각각 하나의 개인적 플랜과 하나의 전문적 플랜을 구분하여 수립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총 6개의 플랜을 수립한다. 이는 하나의 주제에 대한 세 가지 시나리오가 아니라, 각각 차별화된 독특한 대안의 수립으로 삶을 가늠해보는 형태이다. 진행자는 세상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에 발맞추어 매년 연말 즈음에 ‘1가지의 개인적 혹은 전문적 삶의 이정표를 수정하거나, 수립하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워크시트 4-프로토타입 질문 작성

개인의 프로토타입 **prototype** 플랜 수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문사항을 질문형태로 바꾸어 타 참여자들의 답변을 받아보는 국면이다. 각 참여자들이 자신의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질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반전지 크기에 종이 위에 써두고, 서로 옮겨 다니면서 타 참여자들이 제시한 질문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써주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참여자들의 다양한 생각을 수렴한다. 필자의 경우는 현재 직무인 커리어 컨설턴트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질문은 “유명한 커리어 컨설턴트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였으며, 그에 대한 답변은 “모든 프로젝트에서 가치전달 및 훌륭한 관계 만들기”,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유명해지는 법을 질문하기” 등의 답변이 나왔다. 진행자는 ‘프로토타입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전에 문제에 대한 의문을 품고, 질문을 해보는 방법은 프로토타입을 만들기 위한 훌륭한 사전구상이다! 생애설계에서 자신이 지닌 인적자산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림 2 필자의 질문 및 다른 참여자들의 답변 모습



미래에 대한 질문

: 유명한 커리어컨설턴트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답변

1. 모든 프로젝트에서 가치전달 및 훌륭한 관계 만들기

: 입소문 추천 및 인식을 획득하기 위해 '링크드인' 활용

2. 다른사람 다수와 탐색/연구 관련 대화 실시

: 네트워킹 이벤트 참석- 사람들이 찾는 것은?

3. 유명한 사람들을 찾아서 유명해지는 법을 질문

4. 최상의 고객(“유명한 사람”)을 정의해서 그들에게 마케팅

5. 무료 컨설팅을 실시하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회사를 선택

워크시트 5-에너지 개입지도 작성

삶에서 자신의 에너지를 보충시켜주거나, 혹은 빼앗아가는 활동이나 개입내용을 작성해보고, 각각 투자하는 에너지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파악한 이후에 자신의 에너지 패턴에 대해서 느낀 바를 적는다. 목적은 에너지 흐름과 에너지 투자 상의 문제를 파악한 뒤에 그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삶의 에너지 사용을 조정하는 것이다. 진행자는 자신의 사례를 들었는데, 그는 회의참석이가장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경우였으며, 무언가를 디자인하는 경우에 에너지가 가장 충분 하는 경우라고 하였다. 진행자는 한정된 개인의 에너지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기적으로 일에서 몰입을 경험한다면 에너지 투자 상태가 정상이며, 자신의 경우를 잘 파악하는 에너지 관리계획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워크시트 6-개입-영향

이 국면에서는 앞의 5가지 워크시트 작업 결과에 따라서 자신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포함하는 고유한 일들을 파악하고 성찰해보는 시간이다. 먼저 변경/수정, 유지/가족지원이라는 명칭을 X축의 양끝단에 적고, 정치적/국제적 기관, 개인사라는 명칭을 Y축에 적은 이후에 자신의 고유한 일과 그 일에 포함된 역할들은 사분면상의 공간에 배열을 해본다. 배열이 끝난 이후에 '무엇을 인식할 수 있는가?', '어떤 통찰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생각나는 의문은?'이라는 질문에 자신만의 답변을 해보는 것이다. 진행자는 우리가 하는 일은 여러 가지 역할로 구분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러한 일과 세부적인 역할들을 사분면상에서 잘 성찰해보라고 하였다. 진행자는 '자신의 현재 역할에 기초한 미래의 역할을 판단해보면서 삶을 디자인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워크숍 종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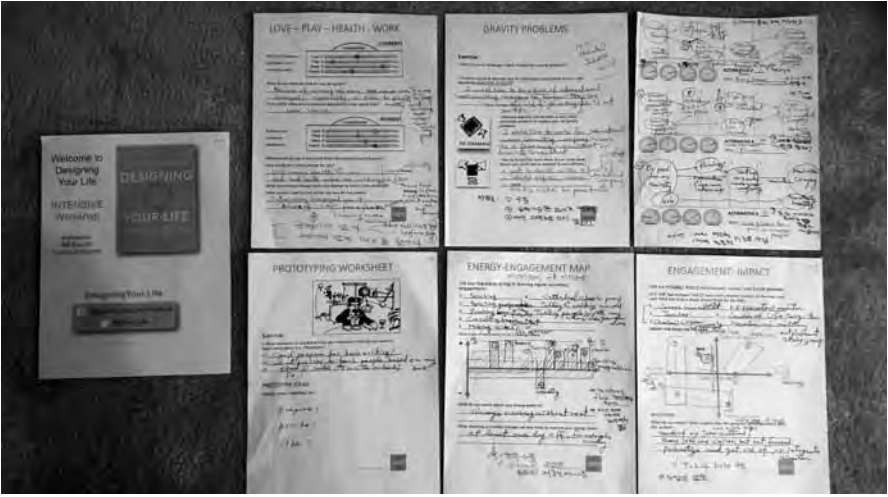
워크숍의 종료는 오전 시작 시와 동일하게 참여자들이 큰 원을 만들고, 자유롭게 자신의 워크숍 소감을 밝히는 시간이다. 소감으로는 '짜과 함께 하는 코칭peer coaching이 매우 좋았다!', '자신의 현 상황을 대시보드에 표시하고, 성찰해본 시간이 매우 좋았다!' 등이 나왔으며, 캐나다에서 참여한 여성 코치는 '워크숍에서 배운 내용을 자신의 코칭에 적용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참여자의 한 사람인 필자의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고 간단한 워크시트를 통해서 자신의 전체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진행자 버넷 박사와 필자



디자인 유어 라이프 워크숍 현장



워크시트 6장 모음

워크숍 참여 설문조사

귀국 이후에 설문조사 전문 업체에서 20개 항목에 달하는 워크숍 참여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5점 척도로 구성된 설문조사 중 한 항목의 예를 들면 ‘워크숍이 자신의 동기부여요인, 일과 삶에서의 행복요인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었는가?’였다. 설문은 강의를 진행자가 아닌 별도의 전문 용역기관인 아일랜드에 위치한 ‘서베이몽키 유럽’[SurveyMonkey Europe](#)사에서 진행하였다.

4. 벤치마킹 포인트

간단한 생애설계 영역 구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프로그램은 ‘사랑’, ‘놀이’, ‘건강’, 그리고 ‘일’이라는 4대 핵심영역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상 6~8대 영역으로 구분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나, 이 워크숍에서는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4대 영역으로 구분한다. 생애설계의 각 영역은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러 가지 영역을 구성하기 보다는 그 계층에 맞는 핵심 영역 몇 가지만으로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더욱이 여러 가지 영역 중에서 먼저 한 가지 영역이라도 잘 관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영역의 발전도 도모할 수 있다.

워크시트를 중심으로 한 자기 성찰 및 토의로 진행

전체적으로 생애설계의 학습이론은 제시되지 않았던 반면에 워크시트에 중심을 둔 참여자 각자의 경험에 대한 자기성찰과 토의로 진행되었다. 토의 간에는 경우에 따라 2인, 3인, 6인 혹은 전체토의를 진행하여 단조로운 워크숍을 탈피하였고, 토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 기초하여 나의 경우를 간접적으로 가늠해볼 수 있는 효과도 노렸다. 워크시트도 칼라로 제작하여 시각적인 효과 및 편안함을 줄 뿐만 아니라 핵심사항만을 간략하게 작성토록 하여 복잡함을 피하였다. 통상적 강의의 지루한 이론의 설명보다는 자신의 경험요인 발표 및 통찰, 그리고 타 참여자들의 의견을 듣는 토론형태로 진행하여 각 국면의 참여도를 높였다.

생애설계 프로토타입에 대한 집단지성 발휘

참여자 각자가 자신의 생애설계 프로토타입들 기획한 이후에 그에 기초하여 개인이 가진 의문사항을 질문형태로 전환하여 반전지 크기의 종이 윗면에 기록해두고, 자리를 떠나서 타 참여자의 질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주는 국면이다. 참여자 수에 따라서 진행시간은 길고 짧을 수 있으나 적어도

15명 이상이 참여하는 각종 워크숍에서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매우 좋은 방법이었다. 참여자들이 가장 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인 국면이었고, 흥미로워 하였다.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프로그램 진행

워크숍이나 각종 프로그램 참석자들의 연령대를 규정하는 것도 좋지만, 50+를 위한 워크숍에서는 다양한 연령대를 포함하여, 세대 간에 서로의 상황을 배우거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획도 매우 유익할 수 있다. 이 워크숍에서는 연령 제한을 두지 않고, 20대에서 60대를 포함하여, 젊은이들은 장년들의, 그리고 장년들은 젊은이들의 생각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연령대를 한정하지 말고, 연령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 진행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연령대에 한정하는 형태의 생애설계 프로그램을 탈피하여, 50+와 50-가 함께하는 형태의 프로그램 진행도 고려해볼직하다.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하여 상호시너지를 낼 수 있고, 배움도 있기 때문이다.

프로그램 진행자의 인생 1막 전문성을 인생 2막의 일에 접목

장년이 중장년 대상으로 커리어 컨설팅이나 강의를 진행한다는 점이 필자의 입장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다. 뉴욕타임즈에서 선정한 베스트셀러 ‘디자인 유어 라이프’의 저자이며, 필자가 참여한 디자인 유어 라이프 프로그램을 진행한 교수 중 한 분인 빌 버넷박사는 원래 인생 1막에서 애플사^社 생산부문 사장을 역임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휴대용 컴퓨터를 접을 수 있게해주는 ‘힌지^{hinge}’를 개발하기도 한 하드웨어 디자인 기술자이기도 하였다. 그런 분이 인생 2막에서 스탠포드대학교에서 프로그래밍디자인 프로그램 책임디렉터 및 교수 자격으로 학생들에게 디자인을 가르치는데,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일종의 소프트웨어로 볼 수 있는 인생 디자인도 가르치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필자가 참여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애설계 프로그램’도 주도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점은 기존의 경력을 활용하여 인생 2막에서 좀 더 창의적으로, 그리고 광범하게 자신의 재능이나 역량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좋은 사례라는 것이다.

5. 결론

우리나라는 2018년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14%를 넘어서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따라서 최근 정부기관, 서울특별시5플러스재단, 민간기업 및 교육 기관들의 생애설계 지원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선진국의 정책 및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한국화를 통한 우리들만의 고유한 정책 및 프로그램 정착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각종 기관 및 기업의 상호 협력 및 프로그램 등의 융합 혹은 통합을 통하여 더 나은 정책 및 프로그램의 탄생을 기대해본다.

참고자료

- 김형숙·봉현철(2011). 디자인씽킹, 경영을 바꾸다. 서울: 초록비공방. 70~74.
- 마르씨 알보허(2017). 앙코르커리어 핸드북. 김경희, 김신형, 홍혜련 옮김. 서울: 비전북하우스. 13.
- 빌 버넷&데이브 에번스(2016). 디자인 유어 라이프. 김정혜 옮김. 서울: 와이즈베리.
- Bill Burnett&Dave Evans, Knopf Publishing Group(2016). Designing Your Life.
- Nora Super(2015). 2015 White House Conference on Aging: Final Report.

독일

지역 사회 열린 교육의 산실, 시민대학

조선아

서울50+해외통신원(프리랜서 리포터/에디터)

1. 독일 성인 교육
2. 지역 시민을 위한 열린 교육의 장 Volkshochschulen
3. 맺음말

19

독일의 교육은 평생교육과 계속교육의 틀 안에서 모든 국민이 다양한 교육 기회를 누리도록 한다. 의무교육과 대학교육에 집중한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과 비교되는 모습이다. 따라서 독일의 성인 교육 체계를 살펴보고, 독일 지역 시민을 위한 평생 교육의 장 시민대학(Volkshochschulen)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시민대학의 교육 이념, 교육 내용, 프로그램 현황과 50+세대의 참여 현황을 살펴본다. 국내 50+세대의 교육 환경에 비추어, 연령과 교육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배움의 뜻을 이어갈 수 있는 독일 시민대학이 주는 시사점을 찾아본다.

1. 독일 성인 교육

독일 성인 교육의 형태

독일의 교육은 ‘평생교육(Lenbenslanges Lernen)’과 ‘계속교육(Weiterbildung)’의 틀 안에서 모든 국민이 다양한 교육 기회를 누리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독일 성인 교육 학자 Peter Brandt는 일반적 분류법에 적용하자면 독일 교육은 특정 ‘체계(system)’보다 ‘영역(field)’의 개념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독일 성인 교육은 이러한 분류에 의해 크게 ‘일반 성인 교육’과 ‘직업 성인 교육’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한다(Brandt, 2015). 두 분야 모두 교육 현장에서 정규, 비정규 또는 비형식 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일반 성인 교육	정치, 문화, 가족 등 특정의 분야를 내용을 다루는 교육
직업 성인 교육	상당 부분 기업 주도 하에서 이루어지며 특히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중요하게 다룬다.

독일 성인 교육 재정 지원

직업 교육과 훈련을 위한 연방 기구(Federal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BIBB) 통계에 따르면, 2012년 독일 성인 교육에 투입된 공적 지원금은 6백만 유로(한화 약78.1억원)에 달했다. 이는 연방 정부 지원금 110만 유로(한화 약14.3억원), 지자체 지원금 130만 유로(한화 약16.9억원), 지역사회 지원금 30만 유로(한화 약3.9억원), 연방 고용 에이전시(Bundesagentur für Arbeit) 지원금 340만 유로(한화 약44.2억원)가 포함된다. 최근 들어 독일 성인 교육에 필요한 재정 지원의 요구는 높아지고 있으나 기관 차원에서의 재정 지원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독일은 기초 교육에만 정부차원의 공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교육 형태의 성인 교육은 연방 교육 정책으로부터 최소한의 규제만 받으며

며 성인 교육 틀 안의 모든 교육은 관련 협회와 국가 교육 기구 또는 교육 관련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독일 성인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방 교육 협회와 국가 교육 기관, 교육 관련 사회단체는 다음과 같다.

표 1 연방 교육 협회 목록

기관	정칙 명칭	홈페이지
독일성인교육협회	Deutscher Volkshochschul-Verband(DVV)	www.dvv-vhs.de
독일상공회의소연합	Deutscher Industrie-und Handelskammertag(DIHK)	www.dihk.de
연방직업교육기관연합회	Bundesverband der Träger beruflicher Bildung(BBB)	www.bildungsverband.info
독일평생교육단체총괄협회	Dachverband der deutschen Weiterbildungsorganisationen(DVWO)	www.dvwo.de
사립학교총괄협회	Verband deutscher Privatschulverbände e.V. VdP: DVWO	www.dvwo.de
원격교육 및 학습미디어전문협회	Fachverband für Fernlernen und Lernmedien-Forum DistancE Learning	www.forum-distance-learning.de
성인교육을 위한 독일카톨릭 협회	Katholische Erwachsenenbildung Deutschland-KEB Deutschland	www.keb-deutschland.de
독일 개신교 성인 교육을 위한 독일 개신교 협회	Deutsche Evangelische Arbeitsgemeinschaft für Erwachsenenbildung(DEAE)	www.deae.de
교육 및 과학 노동 조합	ver.di and GEW trade unions	www.verdi.de; www.gew.de
일과 삶에 관한 연방 조직	Bundesarbeitskreis Arbeit und Leben e.V.(DGB/VHS)	www.arbeitundleben.de
독일 교육 확립을 위한 활성화 기구	Arbeitskreis deutscher Bildungsstätten(AdB)	www.adb.de
카톨릭 사회 교육 협회	Arbeitsgemeinschaft Katholisch-sozialer Bildungswerke(AKSB)	www.aksb.de

교육 관련 정부 기구

기관	정칙 명칭	홈페이지
독일 성인 교육 연구소- 라이프니츠 평생학습 센터	Deutsches Institut für Erwachsenenbildung-DIE	www.die-bonn.de
연방 직업 교육 연구소	Deutscher Industrie- und Handelskammertag(DIHK)	www.dihk.de

교육 관련 사회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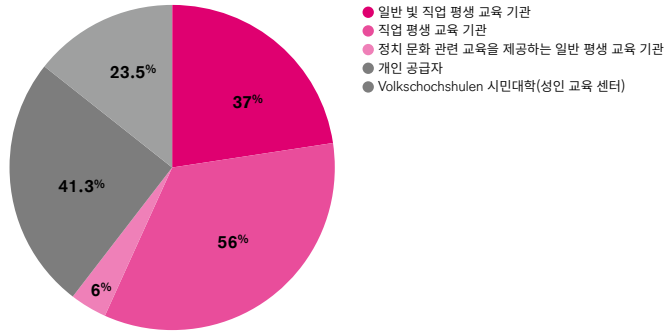
기관	정칙 명칭	홈페이지
독일교육과학협회성인교육부	Deutsche Gesellschaft für Erziehungswissenschaften(DGFE)	steam.human.uni-potsdam.de/sektion-eb/
독일 평생 교육 연구원	Deutsche Gesellschaft für wissenschaftliche Weiterbildung und Fernstudien(DGWF)	www.dgwf.net

자료: European Infonet Adult Education

성인 교육 공급자

직업 교육과 훈련을 위한 연방 기구 BIBB 통계(2008년)에 따르면 위에 명시된 정부·비정부 기관들로부터 지원을 받아 현재 약 25,000개 기관에서 성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표 2 2008년 성인 교육 공급자 구성



자료: Deutsches Institut für Erwachsenenbildung Leibniz-Zentrum für Lebenslanges Lernen e.V.

이러한 독일의 평생 교육의 장이 되고 있는 수많은 교육 제반 시설 중에서도 시민 대학Volkshochschulen, VHS은 독일의 평생 교육의 목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보편적인 공적 교육 기관이라 할 수 있다. 독일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언제나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시민의 교육 받을 권리를 안전하게 보장하는 기관이 바로 시민 대학이다.

2. 지역 시민을 위한 열린 교육의 장 Volkshochschulen

독일의 시민 대학은 19세기 후반 민주화 교육을 목적으로 시민단체에 의해 설립되기 시작하여 현재 독일 내 900개 이상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재정적으로 뒷받침을 받고 있지만 보통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지역 공공 교육 기관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또한, 시민 대학의 교육은 기본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나, 의무 교육에 해당하는 중등 1차 교육 과정을 마친 이후의 성인들의 이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평생 교육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성인 교육 기관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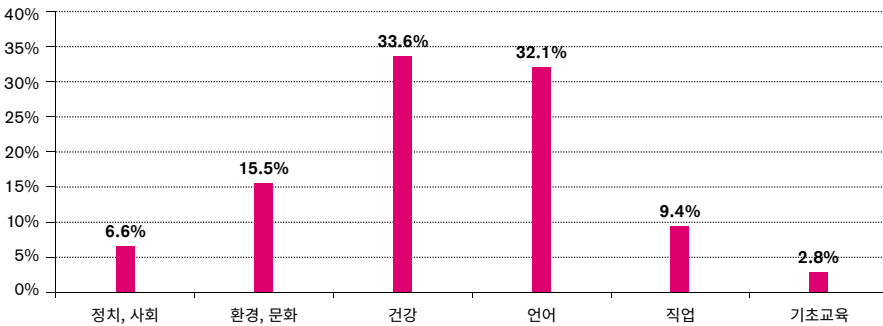
시민 대학 교육 이념

각 시민대학에서는 특정 성, 연령이나 계층에 치우치지 않은 평등한 교육의 기회 제공이라는 원칙 아래 교육 참여자의 이해에 맞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무엇보다 다양한 학습자의 요구와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수업 방식이나 교수법에 대한 끊임없는 개발, 연구, 현장에서의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독일 성인교육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독일 시민 대학의 또 다른 특징은 직업 교육과 교양 교육의 구별이 없는 통합적인 교육을 지향점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시민 대학이 학습자 개개인의 세분화된 학습 욕구가 충족되는 동시에 사회에서 요구하는 시민의 지식 함양에도 기여한다는 목표에 부합하는 지점이다.

교육 내용

교육 내용은 기초 과학과 사회 과학 등 심도 있는 학문에서 공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다룬다. 현재 교육 프로그램은 크게 정치, 사회, 환경과 문화, 건강, 언어, 직업, 기초 교육의 6대 분야로 분류되고 있으며 그 비율은 다음과 같다.

표 3 시민 대학 교육 프로그램 영역별 비율



자료: Volkshochschul-Statisti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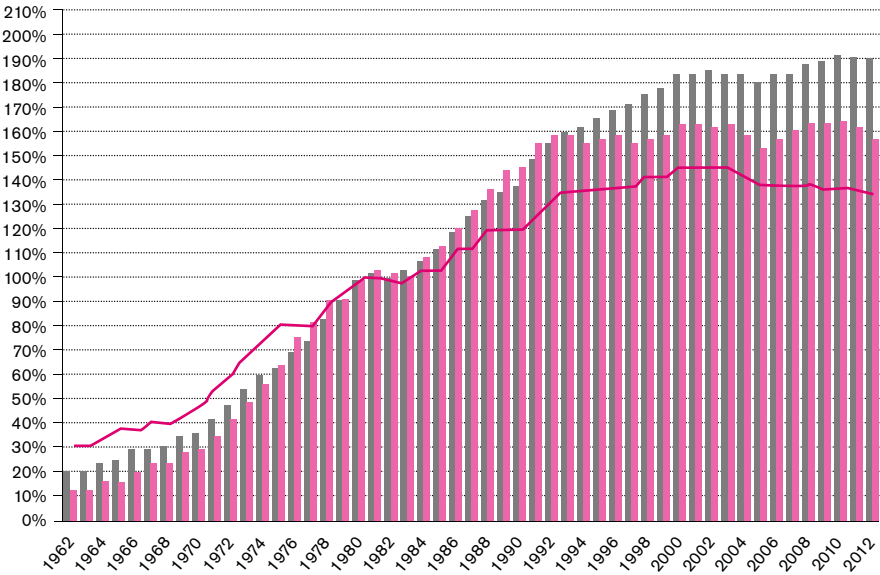
현재 시민 대학에서 제공되는 교육 내용은 1996년 독일 시민협회가 1990년대 까지 도입되어 있던 11개 영역을 각 지역 시민대학의 조건을 고려하여 표준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처럼 시민 대학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육 과정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조건과 요구가 상이한 각 지역 시민 대학의 실정에 맞는 여러 가지 강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지역 시민 대학은 위에서 언급한 6대 영역의 틀 안에서 개별 지역 시민의 요구에 맞는 세분화된 강의 주제를 개별적으로 선정한다.

이러한 교육 내용의 변경에 있어서는 시대상을 반영한 현실 사회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내용이 포함하게 된다. 예를 들어, 196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정치, 사회 조직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가 1980년대에 환경 문제가 중요한 사회 이슈로 떠오르자 환경 보호와 보존에 대한 교육 내용이 강화되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직업에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루는 추세였으나 최근 몇 년 간 독일 사회 내에 난민이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지게 되자 성인 교육의 방향을 난민을 아우를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 현황

시민대학의 프로그램은 1962년 토대가 마련된 이래로 꾸준한 발전을 이루어 오고 있다. 특히, 1970년대에 니더작센주의 성인교육법이 만들어진 이후 프로그램 수, 수업 시간, 등록률에 있어 비약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다. 1990년대 후반부터 등록률은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있지만 프로그램 수와 수업 시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교육의 내용이 다양화, 세분화 되어 그 어느 때보다 양적으로 풍부한 교육 내용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시민 대학 교육 프로그램별 수강생 연령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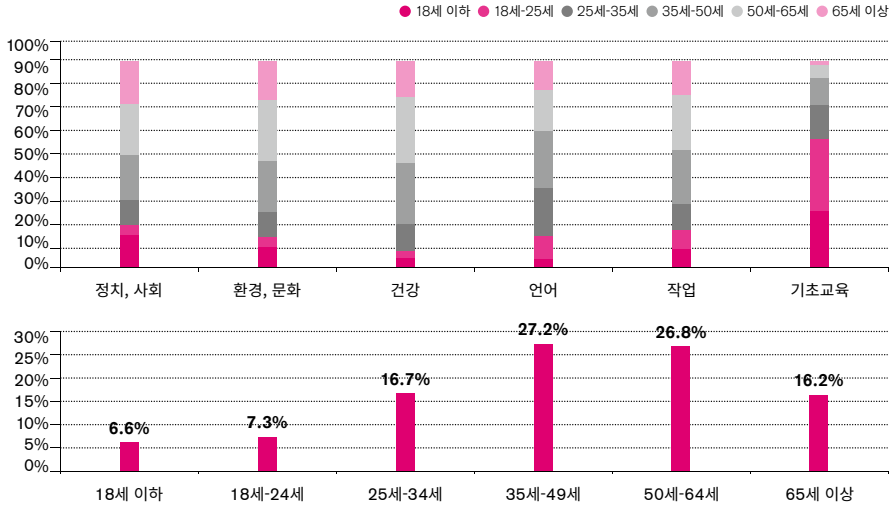


자료: Volkschochschul-Statistik

전체 학생 중 50+세대는 건강 관련 수업을 32.6%의 가장 높은 비율로 수강했고, 그 다음을 문화, 디자인(30%), 직업(26.8%), 정치, 사회, 환경(23.6%), 언어(21.2%), 기초 교육(7.1%)의 순으로 수강했다. 또한 의무 교육 체계에서 다루는 교육 내용을 평생 교육 차원에서 제공하는 기초 교육에서 50+세대와 65세 이

상 연령대의 낮은 수강률을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높아진 50+세대의 기초 교육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표 5 시민 대학 교육 프로그램별 수강생 연령 분포



자료: Volkshochschul-Statistik

시민 대학의 평생 교육학적 의미

앞서 본 바와 같이 독일 전체의 시민 대학 수강생의 절반 가까이를 50세 이상의 성인 인구가 차지하고 있다. 점점 장년 이상의 성인 수강생이 늘어나는 추세는 지속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따라 갈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정보화와 산업 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이루어진 지식과 정보의 폭발적 증가로 인하여 이전에 받은 교육 정도와 상관없이 배움을 이어나가야만 사회 생활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현대 사회의 특징이 반영된 것일 것이다. 특히 늘어난 여가 시간과 생활의 안정을 기반으로 생애에 걸친 배움의 기회를 누리하고자 하는 요구가 과거의 어느 시대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더 이상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이 여겨지던 성인 세대조차 새로운 지식에 대한 계속되는 학습을 요구받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연령에 구애 받지 않고 누구에게나 열린 교육을 실천하는 시민대학이 독일 사회 속에서 가지는 의의는 매우 크다.

3. 맺음말

의무 교육과 대학 교육에 집중한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에 비추어볼 때 연령과 교육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배움의 뜻을 이어갈 수 있는 장이 되는 독일 시민 대학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대학 입학에 무게가 실린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에서 교육의 대상을 젊은 세대로 한정해서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정 연령이 되면 자연스럽게 교육의 틀에서 벗어나는 현상을 줄이고 나아가 평생 교육의 인식 전환과 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연령과 세대, 직업 상태에 관계없이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배움을 이어나갈 수 있는 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평생 학습의 인식 부족은 50+세대 교육을 활성화 하는 데 방해가 될 것이다.

둘째, 개인의 취업 상태와 관계없이, 취업 중인 직장인과 은퇴 재취업을 고려하는 50+세대 모두에게 유용한 소프트 스킬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론과 실무에 초점을 맞춘 직업 훈련도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하지만 직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자기 관리에 실재로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 스킬을 익힐 수 있는 과정을 마련하여 질 높은 직장 생활을 누리면서 직장인으로서의 능력을 향상하는 지속적인 자기 계발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기관 차원에서 성인 위주의 평생 학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관리하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0+세대의 접근성을 높이고 필요한 형성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독일의 시민 대학에서처럼 다양한 배경의 성인 학습자들이 일정에 구애 받지 않고 수강할 수 있는 유연한 형식의 프로그램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독일의 시민 대학 사례는 우리나라 50+교육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풍부한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자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4). "대학의 평생교육 해외선진사례 심층 조사분석 연구".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서지현 (2005). "독일 시민대학(Volkshochschule)의 평생교육학적 의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Basic Structure of the Education System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Rep.). (2016). Bonn, Germany: Secretariat of the Standing Conference of the Ministers of Education and Cultural Affairs of the L?nder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Documentation and Education Information Service. doi: <https://www.kmk.org/fileadmin/Dateien/pdf/Dokumentation/engl-2015.pdf>.
- Brandt, P. (n.d.). Adult Education in Germany. Retrieved from <http://www.infonet-ae.eu/country-overviews/germany>.
- Datenreport zum Berufsbildungsbericht 2013 Informationen und Analysen zur Entwicklung der beruflichen Bildung (Rep.). (n.d.). (2013). Bonn, Germany: Bundesinstitut f?r Berufsbildung. doi:www.bibb.de/veroeffentlichungen.
- Dietrich, S., & Schade, H. (2008). Mehr Transparenz?ber die deutschen Weiterbildungsanbieter. DIE FAKTEN. doi:10.3897/bdj.4.e7720.figure2f.
- Huntemann, H. & Reichart, E. (2016). Volkshochschul-Statistik: 54. Folge, Arbeitsjahr 2015. DOI: www.die-bonn.de/doks/2016-volkshochschule-statistik-01.pdf.

성공적 노화를 위한 배움과 활동, 제3기위원회

최선희

서울50+해외통신원(메이지학원대학 사회학 부속 연구소, 박사 후 연구원)

- 1. 싱가포르 고령자의 학습에 대한 열정
- 2. 제3기위원회(The Council for Third Age, C3A) 개요 및 활동
- 3. 국가실버아카데미
- 4. 50플러스엑스포
- 5. 결론

20

싱가포르는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이다. 이에 대한 대비책 중 하나로, 싱가포르 정부는 <성공적 노화를 위한 실행계획>을 제시하였다. 교육열이 높은 싱가포르 고령자의 니즈를 반영하여 평생교육을 성공적 노화의 수단으로 삼았다. 싱가포르 고령자의 평생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인 제3기위원회를 소개하고, 국가실버아카데미와 50플러스엑스포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싱가포르의 고령화율은 2016년 12.4%로 전 국민 10명 중 1.2명은 고령자인 고령화 사회(고령화율 7%)이다. 하지만 2년 뒤인 2019년에는 고령화율이 14%가 되어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고, 2030년에는 고령화율이 21% 이상인 초고령 사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싱가포르의 고령화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고령사회 대비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과 실행계획(action plan)을 제시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성공적 노화를 위한 실행계획(The Action Plan for Successful Ageing)”을 들 수 있다. 이 계획은 제목 그대로 싱가포르 국민들이 성공적으로 나이를 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행 계획으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평생교육’이 그 중 하나이다. 본고에서는 싱가포르 고령자의 평생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인 제3기위원회(the Council for Third Age, C3A)를 소개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국가실버아카데미(National Silver Academy, NSA)와 50플러스엑스포(50 Plus EXPO)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싱가포르 고령자의 학습에 대한 열정

싱가포르는 교육과 훈련에 관하여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청소년, 성인 노동자에 대한 교육 훈련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 투자도 강화하고 있다. 2003년 싱가포르 노동개발청(Workforce Development Agency, WDA)과 파트너 기관은 직원들의 트레이닝 니즈에 대하여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후기 중등 교육 기관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역량 개발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국민 모두에게 평생 교육을 장려하고 있고, 싱가포르 국민의 기술 습득을 위해 전국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청소년과 청년에게만 국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싱가포르의 많은 고령자는 나이가 들더라도 개인적 관심사 혹은 취업을 위해 계속 배우고 싶어 한다. 학습은 고령자들을 더 건강하게 하고, 사회와의 연결 고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고령자들이 평생교육을 받고자 할 때 정보 접근에의 어려움, 비싼 가격, 까다로운 입학 요건 등 현실적인 장벽들에 부딪히게 된다. 따라서, 고령자들이 학습 정보를 더 쉽게 접근하고, 다양한 학습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연령 별 맞춤 과정 개설과 습득한 기술 및 경험을 인정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에 싱가포르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보다 많은 고령자가 평생교육을 추구할 수 있도록 몇 가지를 제안 하고 있다.

첫째, 접근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학습 선택지를 늘리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고등 교육 기관에서 공부를 하려면 시험을 보아야 하는데 고령자들에게는 시험에 합격해야한다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제거하고자 고령자가 고등 교육 기관에서 시험 없이 원하는 수업을 수강할 수 있게 하였다. 둘째, 고령자들의 학습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성인 교육과 관련 해서, 고령자를 가르치는 강사를 양성하고, 고령자가 고령자를 가르칠 수 있는 동료 학습을 촉진하고 있다. 넷째, 세대 간 통합 학습을 촉진하고, e-러닝, 상호/실험적 학습과 같은 새로운 학습 모드를 장려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포털 사이트, 전단지 배포, 옥외 광고 등을 통해 고령자의 학습 기회에 대한 대중적 인지도를 높이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NSA는 고령자들의 흥미 추구를 위해 30,000여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자발적 복지 기관 [Voluntary Welfare Organization, VWOs](#)과 100여개의 학교, 지역 내 기관에서 세대 간 통합 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싱가포르 정부는 고령자가 되어도 평생학습을 통해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고령자가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세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역량미래크레딧 [skill future credit](#)으로, 2016년 1월 모든 25세 이상 싱가포르 국민은 초기 크레딧으로 기존 정부 보조금에 SGD500(약40만원)을 더 받게 되고, 약 10,000건 정도의 승인 된 역량 과정을 이 비용으로 배울 수 있다. 크레딧의 유효기한은 없다. 둘째, NSA는 고령자 본인이 흥미를 가지고 있는 분야의 과정을 배우고, 활기찬 인생을 보내도록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특히, 상급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C3A는, 100개의 학교와 VWO가 세대 간 학습 프로그램 [Intergenerational Learning Programme, ILP](#)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고령자의 평생학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이를 실천하고 있는 곳인 C3A에 대하여 문헌 조사와 인터뷰 조사를 통해 살펴보하고자 한다.

2. 제3기위원회(The Council for Third Age, C3A) 개요 및 활동

C3A는 2007년 5월에 설립된 기구로서, 공교육, 아웃리치, 파트너십을 통해 싱가포르의 활동적인 고령화를 촉진하는 기관이다. 고령자의 평생 교육, 봉사활동, 긍정적인 노화에 중점을 둔, 활동적인 고령화를 위해 파트너 기관과 협력하여 고령자들의 풍부한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고령자가 풍족하고, 활발하고, 의미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인생에 있어 노화를 활력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을 비전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여러 계획과 플랫폼을 통해 인생3기에 있는 고령자가 긍정적인 고령화 여정을 위해 각자 다른 건강에 대해 자기계발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C3A는 고령자가 사회 속에서 꼭 필요한 일원으로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활기찬 고령자 싱가포르의 창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 C3A는 평생교육, 고령자 봉사활동 장려, 긍정적인 노화 등 3가지 주요 분야에 주력하고 있으며, 고령자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국가실버아카데미, 고령자의 사회 참여를 도모하는 50플러스엑스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고령자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평생교육

C3A는 활발한 노화의 달성을 위해 평생학습과 적극적인 생활의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령자의 전체적인 행복감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령자는 학습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취미 활동을 함께할 수 있는 그룹을 만들고, 그들과 함께 사회에서의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 세대 간 결합과 연대감을 강화시키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과 행동을 보다 유연하게 이해할 수 있다.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50+세대의 다음의 이야기를 통해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Mr Lee Chee Ngauk씨는 이미 경영학 학사, MBA, 경영학 박사를 가지고 있



Mr Lee Chee Ngauk씨의 활동모습

자료: <https://www.moh.gov.sg/ifeelyoungsg/our-stories/how-can-i-age-actively/learn/70-and-onto-his-fourth-degree>

다. 하지만 그는 회계학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다시 캠퍼스로 돌아왔다.

“제가 어렸을 때는 다양한 방면에 대해 알고 있었고, 새로운 것도 배우고 싶었습니다. 제가 경영과 컨설팅 사업을 하면서, 다양한 방면의 지식의 필요성은 더욱 더 높아졌습니다.”

2013년 UniSIM(현재는, Singapore University of Social Science, SUSS)에서 회계학 학위를 취득하고자 등록했다.

“지금까지 저는 비즈니스와 관련된 것들을 주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제 손님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계학을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죠.”

현재 그는 UniSIM의 3학년생으로, 자신의 자녀들과 비슷한 나이의 학생들과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

“제가 코스를 시작하기 전에는, 95% 이상의 젊은이들 집단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토론이나 프로젝트를 할 때 나와 함께 팀을 짜도 되냐고 항상 물어봐 줍니다.”

그는 젊은 학생들로부터 너무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상호 학습할 수 있고, 그것이 내 인생을 더 활기차게 만듭니다.”

그는 회계학의 학위를 취득한 후 공부를 그만두겠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 사실 그는 이미 다음 학위로 법학을 생각하고 있다.

“법률은 우리 생활에 있어 꼭 필요하고, 우리는 법률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졸업을 하고 나면, 제가 배운 것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습니다.”

Eileen Koh 60세

평생교육은 과정보다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배우기로 결정했다면, 매우 힘든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계속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ajam Sadanandan 68세

고령자가 인생에서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젊었을 때 놓쳤던 것이 무엇이든 다시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봉사활동 장려

C3A는 고령자가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시니어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 공헌에의 기여, 지역사회에 보다 많은 봉사활동의 기회 제공, 봉사활동 단체에서 고령자가 다양한 방면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령자는 본인 스스로가 노화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사회활동을 통해 자기 생활의 새로운 장을 발견하도록 한다. 고령자 봉사활동의 긍정적 측면은, 친구, 가족 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개인, 타인, 사회에도 다양한 이익을 가져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음의 인터뷰 내용은 사회 공헌을 통해 본인의 인생을 채워나가고 있는 사례이다.

Mr. Gopal 66세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은 인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채울 수 있다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Mr Gurdip Singh 62세

나는 여행했고, 읽었고, 사진 작가로 살아왔지만, 무언가 빠져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환원하고, 생산적인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긍정적 노화

긍정적 노화 계획은 고령자에게 있어 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인생이라는 여정에 있어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그것이 본인과 타인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사회공헌에 연계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고령화를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라고 인식하고, 이 시기를 인생의 최고의 시기로 만들자는 개념이다. C3A의 긍정적 노화 툴킷 Toolkit은 긍정적 노화 계획의 일환으로 고령자 본인의 자기 계발을 돕는 실천적인 DIY Kit Do-it-yourself Kit라고 할 수 있다. 키트를 기용하여 고령자가 자신의 건강을 이해하고, 향상시킴과 동시에, 나이가 들어도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지하도록 한다. 이 키트는 고령자의 7가지 복지지수(신체적, 지적, 사회적, 직업, 정서적, 재정적, 정신적)가 갖는 목표를 달성, 신장시키도록 돕는다. 다음의 인터뷰는 긍정적인 노화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Daisy Chee 79세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못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아프지 않으려면 꾸준히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친구들을 만날 기회를 주고, 그 기회는 내 인생을 보다 의미 있게 만들어 줍니다

3. 국가실버아카데미

2014~2015년에 걸쳐 고령자를 대상으로 “노년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가?”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그것은 바로 일을 위해서든 취미를 위해서든 “배우고 싶다!”였다. 고령자들의 학습이 그들의 마음을 더 활발하게 유지시키고, 가족, 친구, 나아가 지역사회 및 세계와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 대답했다. 또한,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개념을 지지하지만, 학습의 한계와 가격의 적절성이라는 장벽이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싱가포르 정부 국가실버아카데미를 출범시켰다. NSA는 수업 제공자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기존에는 없었던 풍요로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

단기 코스	
1	단기 코스는 3시간에서 12주간의 기간에 걸쳐 다양한 코스가 있다. 단기 코스는 라이프스타일, 일하는데 필요한 기술 등을 포함하며, 경영, 미디어, IT, 건강과 복지, 예술 등의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2	단기 코스는 싱가포르 50+세대라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으며, 요금의 50%는 정부보조금으로 지원된다(과정당 SGD500/한화 약40만원). 예를 들어 SGD400(한화 약33만원) 과정의 경우, 7%의 소비세는 포함되지 않고, 50% 보조금을 받게 되어 SGD228(한화 약19만원)만 지불하면 수강할 수 있다.



세대간 학습 프로그램 모습 자료: C3A 웹페이지

여러 대학에서는 고령자를 위해 입학 시험 없이 대학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의 파트타임이나 단기 코스 프로그램에 추가된 형태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시험 면제 코스	
1	시험이 필요 없는 과정은 폴리테크닉, 대학, ITE 등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기존의 인증 프로그램으로 제공된다. 이 코스를 듣게 되는 고령자는 다른 학생과 마찬가지로 학위 취득 또는 졸업을 위해서는 모든 단위를 이수하고 출석률도 다른 학생과 같이 평가되지만, 시험을 볼 필요는 없다.
2	싱가포르의 50+세대라면 누구나 시험 면제 코스를 수강할 수 있다.

또한, Ad hoc 학습 기회는 세대간 학습 프로그램(Intergenerational Learning Programme, ILP)을 포함한 파트너 기관의 단기 강연 등이 있다. 특히 ILP의 경우, 싱가포르 국립 대학, 난양 공학 대학, 싱가포르 경영 대학, 싱가포르 사회과학 대학, 폴리테크닉 학교 등과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고령자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ILP는 고령자와 청년을 매칭하여 같은 그룹 내에서 함께 공부하는 세대 간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대 간 학습 프로그램(Intergenerational Learning Programme, ILP)	
1	스카이프나 페이스북 등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는 것을 배우고, 건강관리, 웃음 요가 등을 통해 청년과 고령자가 서로를 배우고, 각자의 경험과 지식을 나눌 수 있다.
2	ILP의 3가지 목적은(1)청년과 고령자 세대 간 통합,(2) 노화에 대한 태도 개선을 통한 활기찬 인생 장려,(3) 고령자 복지의 장려이다.
3	무료로 참가 가능
4	단기 강연은 1-2시간으로, 무료이다.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50+세대와 10대들의 인터뷰를 통해 이들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다.

Shirley Teo 55세

저는 소셜 네트워크 기술을 배우는데 성공했고, 프로그램 기간 동안 새로운 친구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ILP 에서 어린 학생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Ren Ziyu 16세

제 친구는 공부하는 데 있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데 상당한 열의를 보이고, 열심히 합니다. 이런 세션을 통해 ILP 에 참가하고 있는 고령자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보았고, 그들이 공부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NSA는 대학이나 폴리테크닉, ILP 이외에도 예술 기관, 커뮤니티 조직에서 다양한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직업 기술뿐만이 아닌, 노년학,



50플러스엑스포에서 공연하는 모습

자료: Ministry of Social and Family Development



50플러스엑스포 모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습

미디어, 디자인, 재정, IT, 인문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인생의 스킬을 익히는 데에도 초점을 있다는 점이다.

Ms Fiona Tham 51세



코스에 참가한 후, 나의 감정이 그림에 무의식적으로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사는 나의 약점과 두려워하는 점에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술적 매체를 사용하라고 장려해주었습니다. 이 코스에서 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고, 내 인생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Ms Nancy Quek 73세



저는 우크렐레 세대간 학습 프로그램(ILP)의 학생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렐레 상급자 레벨을 목표로 배우고 있고, 열심히 배워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연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령자들의 집에 방문에 그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습니다.

4. 50플러스엑스포

이 외에도 C3A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예술(전시회, 중국화 수업, 중국 서예, 기초 회화), IT수업(기초 컴퓨터, 아이패드, e-엔터테인먼트), 재정(유산, 투자 가이드), 건강(요가, 치매 예방 교실), 요리 교실, 50플러스엑스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50+세대를 대상으로 개최되는 엑스포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싱가포르에서는 C3A가 주관하는 50플러스 EXPO가 개최되고 있다. 50플러스엑스포는 싱가포르의 고령자와 베이비 붐 세대를 위한 박람회로는 싱가포르에서 규모가 가장 큰 종합적인 이벤트로, 모든 이벤트가 무료로 진행된다. 2011년에는 <50플러스엑스포2011>가 4월 2일에 개최되었는데, 당시 홍보 문구는 다음과 같았다. “쇼핑할 때가 아닙니다. 다양한 전시회에 대해 궁금하고, 또 그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은 엄마들은 50플러스엑스포 2011로 향하세요!”



50플러스엑스포의 활동 구역 모습 자료: C3A웹페이지



50플러스엑스포에 참가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참가자 자료: www.ulive.sg, www.agelessonline.net

2011년 열린 엑스포에서는 부스를 설치하여 관련 상품을 전시하거나, 그림, 운동, 게임, 사진, IT 등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었다. 2년 뒤 2013년에도 <50플러스엑스포2013>이 3월 22일~24일간 개최되었다. 2013년의 주제는 “잘 살고, 인생을 축하하기!”였다. 주제에 맞추어, 성장하고 있는 고령자 시장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30여개의 공개 포럼 세션과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C3A의 CEO는 “싱가포르의 고령화를 감안할 때 이 엑스포는 특히 중요합니다. 이 이벤트는 고령자로 하여금 새로운 흥미와 취미를 찾게 해줄 것이고, 여행을 하게 해줄 것이고, 다양한 활동과 학습 세션은 앞으로 고령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게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며, 해당 엑스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13년 엑스포에서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건강, 복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회사도 참가하여 ① 배움(활기찬 학습) 구역, ② 연결(활기찬 라이프 스타일) 구역, ③ 연계(활기찬 연계) 구역, 3개 구역을 중심으로 공개 교육을 실시했다. ① <배움> 구역에서는 고령자가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공부하여 본인 스스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찾고, 장려하도록 설계된 곳이다. 디지털 기술을 배우거나 창조적인 미술, 활동을 즐기면서 새로운 지식을 얻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여 고령자 본인도 몰랐던 새로운 강점이나 흥미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 ② <연결> 구역에서는 고령자에게 사회 참가의 중요성을 알리고, 서로 다른 세대 간의 가치관, 전통, 지혜를 나누는 기회를 제공한다. 활동적인 이벤트로는 암벽 등반 도전, 커피 감상 워크샵, 줌바 세션 등이 있다. ③ <연계> 구역에서는 고령자는 잠재적인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하고, 어떻게 하면 가능한 오래 일할 수 있고, 사회와 연결되어 타인을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하여 느낄 수 활동들이 이루어졌다.

2015년에는 5월 15일~17일에 <50플러스엑스포>가 개최되었는데, 건강과 웰니스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는 것이 테마였다. 기존의 엑스포와 비슷하게, 다양한 강연,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50+세대가 참여하여 새로운 기술을 접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50플러스엑스포2017>은 2017년 3월 24일부터 26일 3일간 싱가포르 선텍 시티에서 실시되었다. 2017년도 엑스포는 참가자들이 흥미 있는 수업에 직접 참여하여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활동적인 노화에 대한 수업을 들어 인생을 즐겁게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할 수도 있도록 운영하였다. 컨퍼런스는 무료로 개최되는데, 노화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해 접근하고, 생각해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본 토호쿠 대학의 무라타 교수는 “똑똑하게 늙어가기”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했다. “똑똑하게 늙어가기” 위하여 고령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개인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사회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고령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개념이다.

싱가포르에서는 <50플러스엑스포>를 개최하여 50+세대의 건강, 복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또한 이 엑스포는 단지 건강, 복지에 대한 관심 뿐 만이 아닌 50+세대의 생활을 보다 풍요롭게 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새로운 취미와 관심분야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5. 결론

본고에서는 싱가포르 고령자의 평생학습에 대한 열정과 그를 뒷받침해주는 정부의 노력을 검토해보았다. 싱가포르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교육열이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초등학생 때부터 대학 진학 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그에 대비한 교육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열정은 아동, 청소년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다. 싱가포르 고령자도 계속해서 배우고 싶어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높은 교육비, 정보 접근성의 어려움, 입학 요건의 까다로움 등의 이유로 고등교육을 받기 힘들었다. 하지만, 싱가포르 고령자의 높은 교육열에 대응하고, 더 활기찬 인생을 지원하기 위해 싱가포르 정부와 C3A에서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NSA를 설립하면서, 싱가포르 고령자들에게 다양한 학습의 기회가 주어졌다.

한국에도 고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곳이 많다. 각 지역에 있는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IT기술, 언어, 운동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노인 대학도 있지만, 실제로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등록금이 비싼 대학의 입학을 간소화시키는 것을 비롯하여 학생들과 함께 어울리게 하는 노력 없이는 통합되기 어려운 점도 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할 수 있다면, 한국에서도 대학과 연계해 고령자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학위를 받도록 하는 원신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C3A의 인기 프로그램 중 하나인 세대간 통합 학습 프로그램 ILP는 이의 목표였던 세대 간의 통합을 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Soh Swee Ping C3A 대표



처음에는 관심을 끌게 하려고 ILP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아이들과 고령자들을 위해 기관에서 음식을 준비해두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음식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 고령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너무 좋아해 직접 음식을 만들어와서 아이들과 함께 나누어 먹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자료: C3A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프로그램 초기에는 사람들을 모이게 하려고 기관에서 노력을 했지만, 지금은 서로가 함께 하는 것이 좋아 자의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세대 간 통합”이라는 말을 자주 접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종합사회복지관의 장점 중 하나가 대상이 아동부터 고령자까지 모든 연령층이 이용하기 때문에, 세대 간 통합이 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프로그램은 많지 않다. 고령화가 증가하고, 그들을 부담해야하는 청년층 사이의 갈등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싱가포르의 ILP와 같은 프로그램을 응용하여 실시하여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도 한국처럼 교육열이 높은 나라 중 하나이다. 따라서 세대 별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제공 등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Ministry of Health(MOH).(2016). <I feel young in my Singapore!?Action plan for successful ageing>. MOH

Ageless Online..(<http://www.agelessonline.net/>). 2017. 11.1

Ministry of Health(MOH).(https://www.moh.gov.sg/content/moh_web/home.html). 2017. 10. 25.

Ministry of Social and Family Development(MSF)..(<https://www.msf.gov.sg/Pages/default.aspx>). 2017. 11. 1

the Council for Third Age(C3A)..(<http://www.nsa.org.sg/index.php>). 2017. 11. 1

Ulive.(<https://www.ulive.sg/>). 2017. 11.1